



정부 '의사 국시' 9월 8일로 1주일 연기 4



삼성, 폴더블폰 앞세워 인도 공략 10

코스피(31일) 2326.17 (-27.63P)  
코스닥 848.24 (+6.94P)  
환율(달러당 원화) 1187.80 (+3.5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40% (+0.047%P)

## ‘대검규칙 위반’ 금융위 디지털 증거 폐기 안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2017년 도입  
조사 끝난 뒤에도 자료 장기 보관  
지조단 10년 보존...“기간 축소 검토”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면서 ‘모바일포렌식’으로 얻은 디지털 증거를 장기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으로 수집한 개인 및 기업 정보를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가 끝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았다. 국회는 금융위가 조사가 끝나 불필요해진 디지털 증거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작성한 ‘2019년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금융위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적시했다. 금융위가 대검 예규에 따라 더 이상 조사에 필요 없는 디지털 증거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2017년 4월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으로 휴대폰 기기의 데이터를 복원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개인 및 기업 정보는 총 224건이다. 이 중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자체 조사해 처리한 사건 건수는 총 66건으로 해마다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으로 수집하는 자료 양은 증가 추세다. 디지털 증거 규모는 매년 커지지만 해당 자료의 폐기 지침이나 규정이 부재한 것이 문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분석·현출·관리·폐기 등의 과정에 대해 대검 예규 제991호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을 따른다. 해당 예규는 범죄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의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당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 금융위 모바일포렌식 시스템 활용 내역

연도	자체 포렌식 시스템 활용 건수	자본시장조사단 사건처리 건수
2017년	80건	21건
2018년	81건	23건
2019년	63건	22건
합계	224건	66건

모바일 포렌식 : 휴대폰 기기의 데이터를 복원하고 분석해 조사에 활용하는 시스템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보존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디지털 증거를 일괄적으로 10년간 보존하게 된다. 타 행정 부처의 모바일포렌식 관련 지침에 비하면 보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폐기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련 사건이 불기소되는 등 당국 처분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 담당자 또는 검사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디지털 증거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디지털 자료를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절차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원칙에 따라 모바일포렌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디지털 증거 보존 기간을 축소하는 사항은 더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자본시장조사단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폐기처리 지침 같은 것은 타 부처 지침이나 검찰 예규를 감안해 새롭게 만들거나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불편하더라도 국민이 2.5단계를 잘 지켜줘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신태현 기자 holjjak@

## ‘코로나 충격’ 기업 채용 5.1% 줄었다

2~3분기 23.8만명으로 1.3만 감소... 11년 만에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에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고용 한파가 본격화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 계획 인원은 23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3000명(5.1%) 줄었다. >관련기사 3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20만8000명)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한 기업이 많다는 얘기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해 기업의 구인·채용 인원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약 3만2000곳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 기업 채용 계획 인원 추이



올해 1분기(1~3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79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3.9%) 감소했다. 채용 인원은

73만4000명으로 1만4000명(1.9%)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 2월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학원 휴업, 관광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7000명(22.7%)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인 자체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체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의미하는 ‘부족 인원’도 올해 4월 1일 기준 2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5.1%) 줄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카카오게임즈 수요예측 경쟁률 1479대 1

SK바이오팜 넘어 ‘역대 최고’  
공모가 최고 수준인 2만4000원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기대주인 카카오게임즈가 기관 수요예측에서 국내 증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입증했다. 남은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도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카카오게임즈는 앞선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경쟁률이 1479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SK바이오팜의 수요예측 경쟁률(836대 1)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며, 1999년 공모주 배정에 대한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IPO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2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공모 참여 기관의 80%에 해당하는 1366곳이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지만,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처럼 향후 공모 과정 등을 고려해 시장 친화적 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SK바이오팜은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 원의 증거금을 모집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공모가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관의 높은 관심과 함께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 역시 카카오게임즈가 제2의 SK바이오팜이 될 것이라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로 꼽힌다.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약금은 최근 50조 원을 돌파했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융자잔고는 16조 원을 넘어섰다.

한편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은 1~2일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과 인수회사인 KB증권을 통해 받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본사 인사

주필	추창근
전무이사 겸 편집국장	김종훈
상무이사 겸 경영기획실장	김덕현
상무이사 겸 광고국장	임영재

이투데이

### 2020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 - 다양성과 포용성**

- 다양성과 포용성

▶ 이투데이 유튜브 채널 생중계  
www.youtube.com/user/etodayco.kr

8일(화) 14시~17시 30분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와 공동으로 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 -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과 참석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와 연계해 진행합니다.

영국의 그린 파이낸스 인스티튜트의 리안 마리 토마스 CEO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만들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영상 강연을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인 녹색금융 조성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도전과 기회’란 주제로 글로벌 변화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어려운 시기에 여성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이번 콘퍼런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최 이투데이 ·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후원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문의 이투데이미디어 기획사업부 (02)799-2683 (사)여성금융인네트워크 사무국 (02)778-0808

# 이 와중에... '임원 퇴직금' 2배 늘리겠다는 공공기관

## 공익보다 '밥그릇 챙기기'

공공기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몇몇 공공기관들의 행보는 국민 이익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들이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 등을 개정해 '돈 잔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원직상 퇴직급여제도 운영 대상은 '임원'이 아닌 '직원'인데도 공공기관들이 임원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 공공기관 중 몇 곳은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경우 임원은 빠라. 직원 대상으로 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에도 복지부동이다. ▶관련기사 15면

◇임원 퇴직금부터 챙긴 예탁원... 기재부 권고 수용=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원퇴직급여지급 기준안을 개정했다. 기본연봉의 월평균치를 근거로 해주던 것을 성과급까지 포함했다.

지난해 보수를 근거로 단순 계산하면 퇴직금이 지급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예탁원의 상임이사 평균보수는 3억 1342만 원. 이 가운데 기본급은 1억6484

## 퇴직금 산정기준 줄줄이 수정

대법 "성과급도 평균임금" 판결  
임원 퇴직금 산정에 성과급 반영

## 기재부 권고사항 실효성 논란

전문가 "임원 제외 강제성 없어  
경영평가 페널티 등 대안 필요"

만 원, 성과상여금은 1억4789만 원이다. 예탁원은 공공기관 중에서 고연봉을 받는 대표적인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예탁원은 지난 6월 기재부가 '임원' 퇴직금에는 성과급을 반영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리자 변경 전 규정으로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는 규정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되돌릴 예정"이라며 "현재 규정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은 임원은 아직 없으며 임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적용 대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직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원은 제외하고 임원들의 퇴직금 규정만 바꾼 사실에 논란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다.

◇"퇴직급여제도, '직원' 대상이 원칙"... 기재부 "임원 빠라"=공공기관 임원들의 퇴직금 불리기는 예탁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분할 계산해 합산하도록 수정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5월 퇴직금에 성과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성과급이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에 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말 대법원이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

면서 공공기관도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고용부는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지난 3월 마련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근로자(직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라는 맥락인데도 예탁원 같은 일부 기관이 임원 대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임원은 빠라고 권고를 내린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원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

다"며 "임원들은 경영성과급이 보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퇴직급여에 산입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예산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법인 창무 홍서원 노무사는 퇴직급여 대해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정해진 퇴직금 산정기준을 따르지만, 임원이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그 액수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적 성격의 권고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기재부에서 내린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관들이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원의 성과를 퇴직금에 넣는 것은 위법이지만, 기재부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내린 권고 사항"이라며 "기재부가 권고 하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권고를 미준수한 곳에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관련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유혜림 기자 wiseforest@

# 金 대신 상품권... 롯데쇼핑 '장기근속 포상 변경' 시끌

## 사측, 전 노조위원장과 단독 합의 직원 불만 폭발... 회사 '아직 미정'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 부문에서 장기근속 포상 관련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임기를 마친 백화점 부문 전임 노조위원장이 내부 직원과의 동의 없이 사측과 근속자 포상 내용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사다.

논란의 쟁점은 '금(金) 포상 지급 여부'다. 그간 롯데그룹 계열사 근속자 포상은

금이나 그에 준하는 상품권 지급으로 이뤄져 왔다. 롯데백화점도 매년 11월 15일 창립기념일에 맞춰 만 10년 이상 금 10돈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만 40년 이상은 금 40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값이 급격히 상승하자 사측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조 수뇌부와 줄속으로 포상 내용 변경을 추진했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실제 최근 롯데슈퍼 장기근속자 포상에서는 금 대신 상품권이 지급된 바 있다.

종전에도 근속자는 금 대신 상품권을 선

택해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엔 금값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직원들 입장에서 상품권을 선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31일 신한은행 기준 금 1g의 가격은 7만 4981원인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만 40년 이상 근속자는 1125만 원 상당의 금(40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포상내용 변경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롯데쇼핑 직원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구 노조 위원장 ○○○를 고발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이 게시

물에는 '구 노조위원장이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측과 합의를 통해 금 지급을 없애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어용 노조 대단하다", "내 25년(근속)은 어쩌나", "노조위원장이 뭘데 마음대로 포상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있나", "이렇게 인원도 줄일 것" 등 댓글이 달렸으며 향후 노조 탈퇴를 예고한 직원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직원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사측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롯데쇼핑 관계자는 "일부 SNS

등을 통해 직원 사이에서 (포상 내용 변경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합의 당사자로 알려진 전임 노조위원장 A 씨는 '사측과 포상 합의가 이뤄진 게 맞느냐'고 묻자 "회의 중이라 통화가 불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롯데백화점의 이번 포상내용 변경 건에는 그룹사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 포상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롯데그룹의 전통으로 경영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명맥을 유지해 왔다.

또, 롯데그룹의 유통사업을 상징하는 백화점 부문의 변화인 만큼 이는 향후 계열사의 사내 복지 제도 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현대백화점그룹 h point

고객과 함께  
생활 속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면세점
- 한섬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Hmall
- 더현대닷컴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 다시 쓰는 프라이팬

현대홈쇼핑은 버려지는 3만개의 프라이팬을  
수거해 '복극금 프라이팬'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프라이팬은  
다시 사용되면서 자원 재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free, 국내 최초 플린덕션 적용으로 열전도율을 높여  
에너지를 아껴주는 친환경 프라이팬입니다.

# 정책악발 떨어지니 소비절벽... “더 큰 고비 온다” 긴장

##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자마자 소비가 고꾸라졌다. 정치권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7월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서비스업생산 증가를 동반 둔화에도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했다. 설비투자(1.5%)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쿠폰·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던 소비(소매판매)는 6% 급감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로 면세점과 편의점은 각각 8.5%, 0.8% 늘었으나, 승용차·연료소매점은 11.2%, 전문소매점은 5.7%, 백화점은 7.2% 각각 줄었다. 1~3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매판매는 4월(5.3%) 반등해 3개월 연속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5~6월에는 전년 동월을 웃도는 수준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7월 급감으로 전년 동월 수준을 간신히 유지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매판매는 2~3월에 크게 위축되었다가 재난지원금이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로 크게 반등해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3% 늘며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며 “다만 7월에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

차개소세·지원금 효과 바닥나자 소비 6%·설비투자 2.2% 감소  
코로나 재확산前 이미 하락세  
“8월 後 경기 악화” 추가대책 필요

소되는 등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유례없는 긴장마의 영향으로 냉방기전 등의 소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이 5~6월 중 90% 이상 소진된 것도 소비 감소의 주된 배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미 4~6월 소비 회복으로 효과가 증명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재위축될 우려가 커 명분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지급보다 저소득층 및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휴직 근로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무게가 쏠린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적 재정지출이 없으면 8월 이후 소비 등 경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낮아졌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으로 0.4P 각각 오르며 2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지만, 여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 초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날까지 18일째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웃돌고 있다. 이날도 2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 심의관은 “산업활동이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좌우되는 모습”이라며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경제외적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7월 산업활동동향 수치를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은 광공업이 1.6%, 서비스업은 0.3% 각각 증가했다. 광공업은 반도체

(-4.8%) 부진에도 자동차(14.4%), 기계장비(6.0%) 등이 늘었다. 제조업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갔다. 출하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늘며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재고가 소폭(0.2%) 증가했으나, 재고/출하비율(재고율)은 116%로 1.7%포인트(P) 내렸다. 평균 가동률은 70%로 1.8%P 올랐다. 단 제조업 등 광공업생산을 회복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증가율이 전월 7.2%에서 1.6%로 둔화했고, 전

년 동월 대비로는 2.5% 줄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서비스업생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전월 2.2%에서 0.3%로 둔화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줄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산업별로 도소매업이 1.4%, 교육서비스업은 1.7% 감소했으나, 금융보험업이 2.2% 늘었다. 숙박·음식점업도 2.3% 증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고용부,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 3개월 연속 감소폭 줄인 고용지표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주저앉나

종사자 전년대비 13만8000명 ↓  
거리두기 강화로 고용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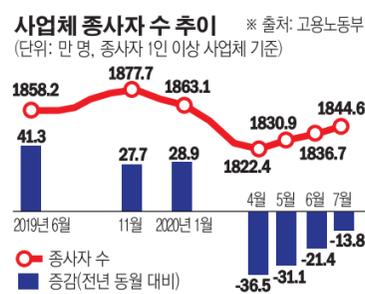
올해 7월 사업체 종사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3월 이래 가장 낮은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코로나19발(發) 고용 쇼크가 다시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4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8000명(0.7%) 줄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된 3월(-22만5000명)을 시작으로 4월(-36만5000명), 5월(-31만1000명), 6월(-21만4000명), 7월(-13만8000명)까지 5개월 연속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7월 감소 폭은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지속에도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이 종사자 감소 폭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면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감소 폭은 3월 이래 가장 낮은 -12만 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은 -7만3000명으로 전달(-7만7000명)보다 개선됐다.

7월 중 사업체에 들어온 입직자(상용·임시일용직)는 98만 명으로 전년보다 7만8000명(8.6%) 증가했다. 이 중 채용된 인원은 83만1000명으로 1만8000명



(2.2%) 늘었다. 6월(3.0%)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다.

이처럼 6월을 기점으로 고용 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 기미를 보였지만 8월부터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이 3~4월 당시에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속출하고 있어서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로 신규 일일 확진자는 이달 14일부터 18일째 세 자릿수(100~400명대)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등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2.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업종인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매출이 급감해 고용 또한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고용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커피숍, 헬스장 등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30

## 1990-2020

###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2020년 공단 창립 30주년과 장애인고용 법제정 3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더 성장시키고, 고객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 감염경로 불명 22.7%... “경각심 갖고 거리두기 실천을”

## 무증상 감염 증가세 비상

코로나 누적 확진 2만명 ‘눈앞’  
“거리두기 효과 이번주 확인  
위험 노출됐다면 검사받아야”

국내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단위: 명)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가 급증세다.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불명확한 확진자가 늘어난 건 그만큼 ‘숨은 감염원’이 많다는 의미다. 자칫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날보다 248명 증가한 1만99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238명은 국내발생, 10명은 해외유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183명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다.

27일 434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환자 수는 200명대로 감소했지만, 이를 진정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통상 주말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 등으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가 줄어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일요일부터 시작된 강화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는 빨라야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경각심을 놓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깜깜이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방대본에 따르면, 18~31일 2주간 신고된 확진자 4432명 중 1007명(22.7%)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간별 감염경로가 집계된 4월 이후 최고치다. 환자 신상·동선을 파악하는 기초 역학조사에만 1~2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간을 16~29일로 이를 앞당겨도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19.5%에 달한다.

정 본부장은 “약 20%의 환자가 다른 기존에 알려진 확진자나 알려진 지역감염과 연계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한 지표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표환자를 감염시킨 감염환자가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감염자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못 찾는 무증상·경증의 감염자가 있다고 해도 감염되고 5일 정도가 지나면 감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에 많은 전파를 일으키지 않게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12시(정오)까지 파악된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56명으로 21명 늘었다. 사랑제일교회 사례는 25개 시설·장소(159명)에서 추가 전파로 이어졌다. 누적 확진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0세~9세가 27명(2.6%), 10대 66명(6.3%), 20대 92명(8.7%), 30대 92명(8.7%), 40대 118명(11.2%), 50대 227명(21.5%), 60대 이상 434명(41.1%) 등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아 중증 이상 환자가 늘 가능성이 크다.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선 확진자 30명이 추가돼 총 399명이 됐다. 사랑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행사 참석자들의 진단검사가 지체돼 11개 시설·장소(120명)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위험요인에 노출됐던 분들은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에도 사각지대 회사 12곳 늘었다

공정위, 64개 대기업 분석  
효성 32곳 ‘최다’... 호반 19곳  
총수家 지분 3.6%로 그룹 장악

올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를 적용 받지 않은 사각지대 회사가 전년보다 12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92곳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0개 집단 소속회사 210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감소했다. 이중 상장사는 4곳이 늘어난 반면 비상장사는 13곳이 줄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를 사익편취 규제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1개 집단 소속회사 388곳으로 전년(376개)보다 12곳이 늘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사각지대 상장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말한다.

이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 구간의 상장사는 현대글로비스, (주)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곳이다. 간발의 차이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이었다. 이어 호반건설(19개), GS(18개)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 계열 분리 등으로 사익편취규제 회사가 줄긴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사례도 늘었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회사는 124개에서 128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는 47개에서 51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회사는 41개에서 53개로 모두 증가했다. 이는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자배구조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5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0%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줄었지만 50%대의 높은 지분율을 유지했다.

내부지분율 57.0%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진족 1.9%)이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총수 내부지분율은 0.9%(총수 일가 2.4%)에 불과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준공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이넷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협 불붙인 파업, 전공의로 공 넘어와

개원의 휴진 참여율 7%도 안돼  
대전협 지도부만 강경기조 유지  
정부, 의사 국가시험 1주일 연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갈등이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 갈등으로 재전개되는 양상이다. 의협의 중심세력으로 초기 파업을 주도했던 개원의들은 2차 총파업 마지막 날인 29일 6.7%만 휴진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서 발을 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로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이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신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1일부터 예정된 시험을 1주 순연하기로 했다.

앞서 대전협은 29일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를 열어 본인들도 서명에 참여했던 범 의료계 타협안을 안건으로 상정, 부결시켰다. 타협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하고, 파업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파업 지속’ 결정이다.

단체행동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하자 대전협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지도부는 강경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대전협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수련의·전공의들은 30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기를 원했으나,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해당 안을(비대위가 아닌) 일선의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표자회의에 부쳤다”며 “의견 수합은 길어야 30분에서 3시간 안에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대전협의 결정에 반발한 비대위들은 비대위에서 집단 사퇴했다.

정부의 압박과 전공의들 간 불협화음에도 대전협 지도부는 강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증 환자가 많이 이용하고 대체제가 많은 동네 의원들은 문을 닫아도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대학병원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당장 수술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전공의들도 그걸 알기에 본인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밑에 해서는 안 될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은 의협이 깔았지만, 이미 의약분업 때처럼 전공의들이 주도세력이 돼 있다”며 “전공의들의 이해관계도 의협과는 다르다. 공은 완전히 전공의들에게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재택근무 알아서 하세요”... 인사처 복무지침 논란

해수부 50%, 농식품부는 30%  
‘기관장 판단’에 맡겨 현장 혼란  
“1m 거리 두려면 50% 재택해야”

8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해양수산부는 50%의 비율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30% 비율로 재택근무 중이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재택비율을 기관 재량껏 하게 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부처별로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혹시 모를 업무 마비 등의 지적을 대비해 공식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비율을 50%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정도다. 나머지는 2단계 이전 3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지침이 ‘적정비율은 기관장 판단하에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라며 두루뭉술하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이를 따로 해석해 재택비율이 들쭉날쭉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미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이나 나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편이다. 이에 다른 부처에 비해 복무지침이 강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4일부터 재택비율을 50%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5월부터 출장 등 매일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재택비율을 20%에서 24일부터 30%로 상향하고 수도권 출퇴근자만 50%로 시행 중이다. 다만 수도

권 출퇴근자가 적은 편이다.

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처별로 다르게 추진되는 재택비율 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 부처 실무자급 공무원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라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50% 이상은 재택근무를 해야 이 지침을 지킬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관련해서도 아직 인사혁신처에서 어렵다 할 지침이 없어서 부처별로 고민도 큰 상황이다. B 부처 운영지원과장은 “필수요원 외에 출근을 못 하게 하는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정책부서는 상관없지만 현장 민원부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필수요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그러나 국·과장급만 출근할 경우 사실상 업무가 어려운 ‘셋다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난민 된 서민... 반전세 늘고 전월세 거래 '역대 최저'

## 새 임대차법 '거래 절벽'

"매년 요맘때면 학군 수요 등으로 전세 거래가 활발했는데 올해는 전세 물건도 없고 거래도 뜸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높여 부른 호가에도 전세 물건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H공인중개사)

서울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물건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경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보유세 부담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을 월세로 받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으로 집계됐다. 7월(1만1600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1만 건 미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이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월 1만 건 아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월세 거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했던 현상이라고 말한다. 서울지역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7월 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 등 전세기

## 전월세 계약 한달새 '반토막'

부동산 규제에 집주인 실거주 ↑  
인상분 맞춰 주는 세입자 늘어

## 더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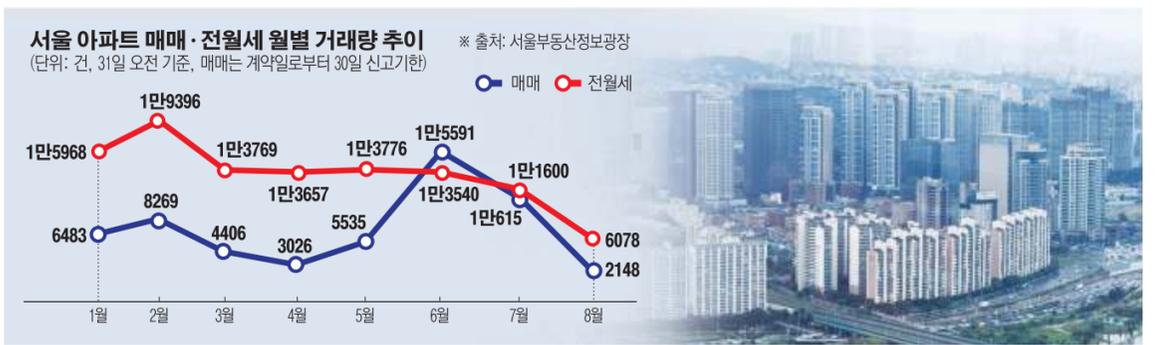
반전세 비중 14% 올 들어 최고  
순수 전세 73%... 3개월 연속 줄어

## 전문가 "세입자 보호 취지 벗어나 보증금·월세 동반 상승 등 악재"

장 불안을 야기할 만한 요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세 물건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매물이 더 줄었다"며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거주를 결정한 집주인들도 있고, 전세를 구하기 힘든 세입자들이 그냥 가격을 올려주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많아 전세 물건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집주인들이 '반전세'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는 원인이다. 강남구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세금(보유세)이 터무니없이 오르다 보니 이를 채우기 위해 월세로 바꿔 달라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당장 수입이 없는 노년층에서는 수십만 원 월세라



도 받아서 세금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8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7월(10.1%)과 비교하면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사이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74.1%에서 7월 73.1%, 8월 72.7%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장

보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형은 7월 24일 보증금 6억 원 월세 90만 원에 거래됐지만, 8월 20일 보증금 6억 원 월세 140만 원에 거래를 마쳐 월세 50만 원이 올랐다.

강남구 대치삼성아파트 전용 97.35㎡형의 경우 7월 13일 보증금 7억5000만 원에 월세 130만 원(18층)으로 임대차 계약했으나 8월 4일엔 보증금 8억5000만 원 월세 140만 원(4층)에 계약서를 썼다. 아파트 층수가 낮은 데도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10만 원이 더 오른 것이다.

강남뿐만이 아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

뉴타운 e편한세상 전용 59.79㎡형은 올해 초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반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나, 지난달 15일 보증금 1억3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거래됐다. 7개월여 만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0만 원이 뛰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보증금과 월세까지 계속 오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서울 청약 '하늘의 별 따기' 최저 60점 넘어야 당첨권

평균 최저 가점 4.7점 상승  
민간 분양가상한제에 물량 ↓  
"30~40대 '청포자' 속출할 듯"

서울에서 공급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가점이 최소한 60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9월부터 신규 물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청약 가점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30~40대에 청약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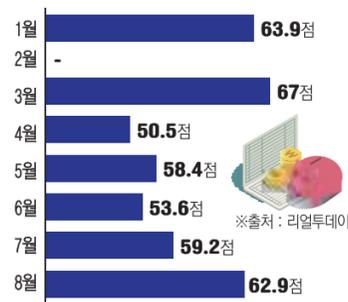
3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이하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최저 청약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상승한 수치다.

무주택 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에 따라 결정되는 청약 가점은 최고 84점이다.

서울에서 당첨권 청약 가점이 높아진 것은 7월 말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신규 분양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 청약 가점이 높아도 당첨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 경쟁에 가세하면서 평균 당첨권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7~8월 서울에서는 13개 단지가 분양했다. 일반분양 3922가구 모집에 총 24만 9646명이 몰리면서 평균 63.7대 1의 청약

### 서울 분양아파트 월별 최저 청약 가점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2430가구 모집에 총 18만129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74.6대 1을 찍은 바 있다.

당첨권 청약 가점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청약 경쟁률도 잇따라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8월 1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푸르지오 써밋'(구마을 1지구 재건축 아파트)은 평균 168.1대 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2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은평구 수색중산뉴타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수색 13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34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산으로 청약을 받은 이래 서울 최고 기록이다.

9월부터 분양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 평균 경쟁률과 당첨권 청약 가점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9월 서울의 일반분양 물량은 153가구에 그쳐 지난해 동월(1995가구) 대비 92% 급감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40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청약 가점 커트라인 상승으로 인해 30대를 중심으로 '청포자(청약 포기자)'가 속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에 도전하는 당신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DB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꿈을 펼쳐라

#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급 검토”

“근로장려세제 대폭 늘릴 것  
野와 합의 가능한 것부터 협치”  
삼임위 재배분 원내대표에 일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첫 아젠다로 민생대책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추석에는 민생지원 대책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대책을 병행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추석 명절 민생대책의 하나로 역점을 둘 부분으로 근로장려세제를 꼽으며 “대폭 확대하고 앞당겨 시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급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위는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늘 한두 마디의 아젠다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라며 “입법 과제로 보면 경제, 사회 개혁입법, 균형발전 네 가지로 말해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18곳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일임키로 했다. 이 대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말씀에 담긴 진의가 뭘지 파악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5·7월 계속됐던 우여곡절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은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협치가 따로 있고 국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국회에서 안건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내실 있는 협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께서 추진하는 일을 잘 하는 것 같다.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통합당) 정강정책 변화가 중도화, 좌클릭이라고 말하는 데 그리 하다 보면 우리 당 정강·정책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것부터 추출해서 입법화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피력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누가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상황의 위중함, 열린우리당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기류 속에서 절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던 것은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무를 시작한 이낙연 대표는 처음으로 주재한 당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정리하는 등 청취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선을 빠르게 이어가는 등 이낙연 체제로 재편했다. 신임 사무총장에 박광은 의원, 정책위의장에 한정에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당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과 박성민 청년대변인을 임명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거 위해 출국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 제1라운드 협의 절차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하고 있다. 현재 사무총장 후보자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연합뉴스

## 靑 정무비서관 배재정·국정홍보비서관 윤재관 청년 김광진·기후환경 박진섭·안보전략 장용석·평화기획 노규덕

신임 비서관 다주택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국회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년비서관에는 김광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교체되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한 지 8개월 만이다. 여 비서관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거주 중인 마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전매 제한에 묶인 분양권 대신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최종권고 시한인 이날

까지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비서관의 후임인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포함해 이날 발표된 신임 비서관 6명은 모두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다.

배재정 전 의원을 정무비서관에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뒤 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을 물려받아 20·21대 총선에 출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다. 배 비서관이 당·청을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쏠리는 이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배 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폭넓은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여 비서관 후임으로 발탁된 윤 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일환 기자 whan@

## 통합당 역사속으로... 새 당명은 ‘국민의힘’

보수당 ‘국가→국민’ 첫 전환  
내일 전국위 거쳐 최종 결정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 ‘국민의힘(people’s power)’으로 결정됐다. 통합당이 당명을 변경하는 것은 출범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미래통합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탄생으로 ‘국가·나라’ 중심의 당명 체계가 30여 년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으로 전환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31일 통합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속의 끝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최종 후보 안으로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당명 공모에서 ‘국민’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제안된 점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당명 공모를 진행했다. 당명 공모에 1만6000여 건이 접수됐으며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당은 또 이날 오전 11시 사상 처음으로 하는 ‘유튜브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으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를 거쳐 새 당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통합당이 전국위에서 당명 변경을 의결하면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유지된 당명으로 남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민자당)을 보수당의 원조로 보고 있다. 그 이후 신한국, 한나라, 새누리, 자유한국당 등으로 당명이 변경됐다. 이후 올 들어 4·15 총선을 앞두고 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진영이 합쳐 통합당을 출범시켰지만 수명은 1년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n@

**굿네이버스**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



## 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운송수단 포함)/실외(집회 등 다중이 집합한 경우) \*일상적 사생활·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위반하여 코로나19 확산 초래 시 구상권 청구
- 8. 24.(월) ~ 별도 해제 시까지

문의 02-120

# ‘90세 생일’ 맞은 버핏 “Buy 재팬”

“장기 가치투자...복리마법 믿어”  
미쓰비시상사 등 지분 5% 사들여  
지분가치 62억5000만 달러 달해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의 90세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만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출처 트위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구순(九旬)에도 주식을 사들이며 투자로 ‘정주행’했다. 또 총자산이 820억 달러(약 96조9000억 원)로 불어나는 동안 자신이 굳게 지켜온 투자 신념인 ‘오래 물어두는’ 가치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버핏 회장이 이날 90세 생일을 맞이한 가운데 버크셔는 일본 주요 무역회사 5곳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버크셔는 성명에서 “지난 1년에 걸쳐 이토추와 마루베니, 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 스미토모상사 등 일본 주요 무역회사 5개사의 지분을 각각 5% 이상 사들였다”고 밝혔다. 28일 종가 기준으로 버크셔가 매입한 일본 무역회사 5곳의 지분 가치는 총 62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종합상사인 이들 기업은 에너지와 금속, 음식, 직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입을 주도한다. 일본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지만, 글로벌 입지를 확장하면서 치열해진 경쟁 탓에 사업전망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

이다. 그러나 버크셔는 “앞으로 이들 회사 주식을 각각 최대 9.9%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장기 투자할 것임을 강조했다. 버핏은 “버크셔가 일본과 5개 기업의 미래에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구순 생일에 공개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다시 한번 버핏의 신념이 나타났다고 CNBC는 평가했다. 버핏은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으로 평평이났다. 코카콜라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무디스 등의 주식을 들고 있는 기간만도 수십 년이 넘었다.

이와 관련 버핏은 90세 생일을 기념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인 ‘복리의 마법’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는 오랫동안 ‘므두셀라 기법’이라는 것을 권유했다”고 입을 열었다. 므두

셀라는 구약성서에서 969년을 살았다고 나오는 인물로, 버핏은 오랜 시간 안정적이고 짝퉁한 투자 수익을 내는 곳에 돈을 묵혀두는 가치투자의 핵심을 므두셀라에 비유한 것이다.

앨리스 슈뢰더의 버핏 회장 전기인 ‘눈덩이(The Snowball)’에 따르면 버핏은 아주 어렸을 때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간파했다. 10세 때 읽은 “1000달러 만드는 방법”이란 책을 통해 시간의 중요성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고작 1000달러에 불과한 돈을 수익률 10%에 복리를 적용하면 5년 뒤 1600달러, 10년 뒤 2600달러, 25년 뒤 1만800달러, 50년 뒤 11만7400달러로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어린 버핏이 숫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것을 마당에서 눈덩이를 굴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생생하게 연상한 것이다.

20세부터 복리에 대한 버핏의 믿음은 자동반사적이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3만1500달러의 자택을 사면서도 그 돈이 나중에 100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점에 “허튼짓을 했다”고 중얼거렸다. 이발하면서 “여기에 ‘30만 달러’를 써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펀드처럼 보여도 투자와 시간이 결합하면 나중에는 막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대통령-경제장관 ‘재정 갈등’ 브라질 헤알화 폭락 우려 고조

올해 달러 대비 30% 하락

달러당 브라질 헤알 가치 추이  
(단위 : 달러당 헤알, 현지시간 증가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흔들리는 브라질 경제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 시장 및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31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게지스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제계 인사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우리의 머리에 천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 또는 천장을 고정해야 한다”면서 “이 나라에서 ‘천장’이라고 불리는 재정 지출의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에서 차기 대선을 내다보고 현금 지급 정책 확충을 도모하는 가운데,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게지스 장관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보우소나루 정권은 2016년까지 집권했던 좌파 진영이 세운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보우사 패밀리리아’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방침을 뒤집고, 일찍이 비판했던 선심성 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빈곤 가정을 위한 현금 지급 정책 보르사 패밀리리아를 쇄신, 지급액을 증액하거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이다.

현지 지역지 풀라지상파울루에 따르면 가구당 현금 지급액을 매월 300헤알(약 6만6000원)로, 현행 수준보다 60% 가까이 늘리고, 지급 대상도 기존 1420만 가구에서 약 4~6%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데다가, 2022년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삼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사람이 게지스 장관이다. 그는 코로나19 대책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금 지급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우사 패밀리리아 재원과

관련해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액을 일시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각각에 대한 지급액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 줄 수는 없다”면서 “경제부가 제안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장에서는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한다. 또 이번 정권의 행보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 게지스 장관은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신뢰도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재정 적자 요인이 되고 있던 연금 제도의 개혁을 주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노선 대립이 표면화하면서 개혁 노선이 정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미 미국 달러 대비 헤알 가치는 올 들어 지금까지 30% 이상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개혁 성향의 게지스 장관이 현 정권을 떠나면 추가적인 통화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앞서 4월 말 게지스 장관 하차설이 한 차례 나돌 당시에도 브라질 헤알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변효선 기자 hsbun@



체코 의장 대만 방문에... 中 “대가 치를 것” 밀로스 비르트르칠(가운데) 체코 상원의장이 지난달 30일 대만 타이위안 공항에 도착해 우자오세(오른쪽) 외교부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비르트르칠 의장은 상원의원 8명과 프라하 시장 등 89명을 이끌고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 언론들은 1989년 체코가 ‘벨벳혁명’으로 민주주의의 국가가 된 이후 처음으로 현지 최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하나의 중국에 도전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격분했다. 타이위안/AFP연합뉴스

# 유나이티드 “항공권 변경 수수료 무료”

매출의 15% 차지하는 수수료 포기  
항공업계 고객유치 출혈경쟁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미국 항공업계가 무한 경쟁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날 국내 항공편 변경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미 국내외 항공편의 변경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었지만, 국내 항공편에 한해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수수료 폐지를 선언한 항공사는 유나이티드가 처음이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에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물었을 때 수수료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항공사가 어려움 속에서 고객 서비스를 줄이는 선택을 했다”며 “그러나 유나이티드항공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이 지난해 벌어들인 항공편 변경·취소 수수료는 6억2500만 달러(약 7388억7500만 원)에 달했다.

항공편 변경 수수료는 수하물 추가 수수료와 함께 항공사의 강력한 수익원 중 하나다. 컨설팅회사아이디어웍스컴퍼니의 조사 결과 미국 항공업계가 부과한 각종 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5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항공사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했다. 미국 교통부(DO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항공업체들이 항공편 변경과 취소 수수료로 벌어들인 매출은 28억 달러에 이르렀다.

CBNC방송은 유나이티드항공의 정책 변화가 다른 업체에도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이 향후 3~5년간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는 등 상황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객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조사 결과 올해 여름 미국의 항공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최혜림 기자 rog@

# 바이트댄스 “中허가 필요”... ‘틱톡’ 美 매각 급제동

중국, AI 등 ‘수출 제한 기술 목록’ 발표... 매각 협상 새 국면

중국 바이트댄스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리스트를 개편한 새 수출 규제를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인기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매각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 행정부의 매각 압박과 중국 정부의 새로운 수출 규제 등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틱톡 인수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술 목록’ 수정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와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엄격하게 준수해 기술 수출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음성 및 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AI 분야 기술이 포함됐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넘기기 위해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를 압박해 왔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중국 인터넷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같은 달 14일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체와

관련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바이트댄스는 새로운 수출 제한 규정에 따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됐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노골적 금지까지는 아닐지라도 매각 지연을 겨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만 약 1억 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을 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식적으로 인수에 참여했으며, 월마트가 MS와 공동인수를 위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트위터도 여기에 가세해 초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됐으며, 오라클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효선 기자 hsbun@

# 코로나 대출 증가로 '은행 BIS비율' 3분기 연속 하락

전분기比 0.19%p 줄어 14.53% 산은 12%대 추락... 건전성 우려  
금감원 "규제비율 대비 여력 충분"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이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은 2분기 들어 12%로 내려앉았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가 규제비율 대비 자본여력(buffer)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53%로 전분기 대비 0.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2.67%(-0.13%p), 12.09%(-0.07%p)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하락세에 대해 "전년 말 대비 BIS비율이 하락해긴 했으나 규제비율 대비 3~4%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상 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10.5%, 기본자본 8.5%, 보통주자본 7%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총자본비율이 10.5% 아래로 떨어지면 이익 배당 및 직원 보너스가 제한되고 8% 이하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받게 된다.

은행 별로 보면,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4~15%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 13.45%, 수협 13.65%로 13%로 내려앉았다. 산업은행은 전분기

	2018년 말	2019년 말	2020년		변동 (b-a)
			3월 말(a)	6월 말(b)	
BIS 총자본비율	15.41	15.26	14.72	14.53	-0.19%p
기본자본비율	13.25	13.22	12.80	12.67	-0.13%p
보통주자본비율	12.66	12.56	12.16	12.09	-0.07%p

※출처: 금융감독원

13%대에서 12%대로 하락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 유동성 공급 책임을 맡은 영향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68%, 12.26%, 11.17% 및 5.58%로 파악됐다. 전분기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26%p, 0.28%p, 0.21%p 상승했다. 2분기중 자본 증가율(총자본기준 +2.2%)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0%)을 상회했다. 자회사의 자산 증가 등에도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우리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이 감소(-21조 8000억 원)하며 은행지주 전체의 위험가중자산이 3조4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다.

모든 은행지주회사가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3%)는 적용받지 않음에도 KB·하나·신한·농협 등 대형 지주회사(D-SIB)의 총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2%p 이상 상회했다. 우리지주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평균에 미달하나 2분기 중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총자본비율이 0.93%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지주회사가 규제비율 대비 자본여력(buffer)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결제 최종안 시행(6월)에 따라 이를 적용(은행별 준비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시기는 차이)하는 은행은 BIS비율 상승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은행(지주)가 자금공급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본확충·내부유보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 sjy@

## '깨알글씨' 대신 그림·도표로... 복잡한 보험약관, 가독성 높인다

깨알 글씨 또는 암호 같은 문구로 작성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보험약관이 앞으로 그림·도표 등이 첨부된 시각화한 자료로 배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계약 체결 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다. 내일부터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된다.

기존 보험약관은 줄글로 명시돼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장

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그래프 등을 활용해 설명하기로 했다.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안내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 청와대 찾는 금융권 CEO '한국판 뉴딜' 머리 맞댄다

뉴딜펀드 참여·후순위대출 등 종합 금융지원 세부 방안 논의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청와대를 찾아 '한국판 뉴딜'에 대해 논의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첫 전략회의가 열린다. 청와대가 금융권 CEO와 만나는 건 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금융회사 CEO 13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와 흥남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기재부·금융위·과

기부·산업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6개 금융협회장 등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뉴딜 펀드 도입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세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뉴딜 펀드'와 관련된 금융권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인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을 만나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도 금융권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지금까지 한국형 뉴딜의 일환인 뉴딜 펀드에 대해 "3% 안팎의 수익률을 제공하며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을 투입하거나 정책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민간 금융권에도 후순위대출 등 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범근 기자 nova@

## 삼성화재, 가성비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 출시

삼성화재는 최근 힘든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성비를 높인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년 또는 30년 주기로 100세까지 자동갱신 되는 새로운 상품이다. 자동갱신형 구조 도입으로 평균 2만~4만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100세만기 비갱신형 자녀보험 상품은 고연령의 위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미리 납입



하는 구조로 통상 8~10만원 수준이었다.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는 가을·겨울철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독감(인플루엔자) 관련 보장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객진산 기자 jinsan@

www.douzone.com

DOUZONE

##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을지타워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DEWS 개발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종합채용공간 DTEC

전문 컨설팅 그룹이 집중 지원하는 FoEX 구축방법

국제 기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CMMI Level3 인증

〈업계 추정 가격 119만원〉

# 삼성, 갤럭시보다 싼 폴더블폰으로 14억 인도 공략

韓·美·英보다 먼저 모델명 공개  
노태문 사장 “올 하반기 대중화”  
오늘 ‘갤럭시Z폴드2’ 언팩 행사



삼성전자가 이번 달 출시하는 세 번째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2.

삼성전자가 100만 원 초반대인 보급형 폴더블폰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인증 페이지에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번엔 ‘인구 14억’ 시장인 인도 공식 홈페이지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노태문 무선사업부장(사장)이 취임 이후 제시한 과제 중 하나인 ‘폴더블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보급형 폴더블 스마트폰인 ‘SM-F415F’ 모델명을 삼성전자 인도 홈페이지 스마트폰 제품 항목에 추가했다. 한국이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삼성전자 홈페이지

에선 해당 모델명을 검색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에서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Z폴드를 출시했고, 신제품인 갤럭시Z폴드2 역시 이번 달 출시하는 등 폴

더블폰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인도시장 특성상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폴더블폰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SM-F415F가 처음 시장에 이름을 알린 건 삼성전자가 이달 중순 와이파이가 기술인 증 페이지에 해당 모델 등록을 마치면서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제품 번호인 SM-F가 붙었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와이파이가6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급형 폴더블폰일 것으로 추정됐다. 또 64기가바이트(GB) 또는 128GB 저장 공간 옵션, 검정·녹색·파란색 색상 라인을 갖추고 있다.

해외 IT 매체 샘모바일 등 각종 외신은 해당 모델이 갤럭시 Z폴립 후속 혹은 보급형 제품일 것으로 추측하면서, 가격은 1000달러(약 119만 원) 내외에서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시 시기는 올해 연말

이나 내년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이래 가격대를 낮춰오면서 폴더블폰 대중화를 시도했다.

갤럭시 폴드의 경우 출고가가 240만 원에 달했던 반면,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Z 폴립은 가격대를 164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글로벌 출시를 앞둔 갤럭시 Z폴드2도 전작보다는 소폭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은 가격대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인 만큼, 일반적인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인 1000달러 내외의 폴더블폰 제품군 보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노태문 사장도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수량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며

“가능하면 올해 하반기 내로 폴더블 대중화를 달성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보급형 출시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폴더블폰을 스마트폰 메인 제품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아직까지는 화웨이나 모토로라 등 신규 진입업체와 폴더블 기술 격차가 큰 상태에서, 보급형 모델을 공급한다면 시장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디스플레이셔플라이제 인컨설팅(DSCC)에 따르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규모가 올해 540만 대에서 내년 1400만 대, 2023년엔 4300만 대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업계에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량이 올해 300만 대에서 내년 800만 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전월 이용 금액〉

## 30만원 이상 쓰면 최대 30만원 할인 ‘삼성페이카드’

삼성페이 앱에서 신청 가능  
연말까지 결제 시 파격 혜택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페이 특화 ‘삼성페이카드’〈사진〉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와 협력해 삼성페이만의 특화된 전용 카드 ‘삼성페이카드’를 31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페이카드’는 삼성페이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용카드로 삼성페이 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실물카드로도 발급된다. ‘삼성페이카드’는 삼성페이 앱을 통해 카드 신청·발급부터 결제, 다양한 카드 관리 기능 등이 모두 가능하다.

기존 삼성카드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할인 내역·실적 총측 여부·결제예정금액·카드번호 및 해외결제지단 등도 삼성페이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삼성페이카드’는 삼성페이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1% 결제일 할인,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1.5%의 결제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국내 온라

인 가맹점에서 삼성페이 결제 시 0.5%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삼성페이 쿠폰상에서 결제하면 3%, 캐시비 환불교통 이용시 2%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월 국내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카드·마스터카드와 협력해 ‘삼성페이카드’ 등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해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결제서비스도 시작한다. 삼성페이 해외 결제서비스는 전 세계 NFC 단말기가 있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삼성페이를 통해 ‘삼성페이카드’로 결제할 경우, 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극장급 화질 ‘LG 홈프로젝터’

‘시네빔 레이저 4K’ 연내 출시  
매일 4시간씩 봐도 14년 수명

LG전자가 고화질·초대형·편의성 3박자를 두루 갖춘 가정용 프로젝터 신제품 ‘LG 시네빔 레이저(Laser) 4K’〈사진〉를 연내 선보이며 빠르게 늘어나는 홈 시네마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영화관 못지않은 화면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려는 홈 시네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PMA에 따르면 글로벌 홈 시네마 프로젝터 시장은 올해 13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24년 22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LG 시네빔 레이저 4K는 4K(3840x2160) 해상도에 100만:1 명암비를 지원해 입체감 있는 고해상도 영상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이 제품엔 렌즈에 투사되는 광량(光量)을 조절하는 LG전자만의 독자 기술이 탑재됐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터는 어두운 공간에서 선명한 화면

을 보여주는데, 이 제품은 밝은 공간에서도 기존 제품 대비 더 또렷하고 생생한 화면을 보여준다.

또 파란색과 빨간색 레이저 광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듀얼 레이저 광원’을 활용해 단일 광원에 비해 더욱 풍부하고 섬세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디지털 시네마 색 표준(DCI-P3) 기준 97% 충족한다. 통상 업계는 이 표준을 90% 이상 충족하면 UHD 프리미엄 화질을 구현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듀얼 레이저 광원은 수명이 최대 2만 시간에 달한다. 이는 고객이 하루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약 14년 동안 광원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용자는 제품 화면 크기를 40인치(대각선 길이 약 1m)에서 최대 300인치(대각선 길이 약 7.62m)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LG전자는 연내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신제품을 순차 출시한다. 이에 앞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 IFA 2020에 맞춰 준비한 3D 가상 전시장에서 신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노우리 기자 we1228@

## 포스코케미칼, 배터리 양극재 4만→7만톤 증설 공사

2895억 들여 광양공장 3단계 확장  
2022년 전기차 84만대 탑재 규모

포스코케미칼은 31일 전남 광양시에서 양극재 광양공장 3단계 확장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산 3만 톤 규모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NCMA 양극재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2895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2년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NCMA 양극재란 기존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에 AI(알루미늄)를 첨가한 제품이다. 배터리 용량과 안정성과 출력을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꼽힌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증설로 양극재 전체 생산능력을 연산 4만 톤에서 7만 톤으로 확장하게 된다. 이는 60킬로와트시(kWh)급 전기차 배터리 84만여 대에 탑

재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케미칼은 2018년 8월부터 광양 울촌산업단지내 축구장 20개 크기로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기술 리더십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세계 시장 점유율 20%, 연 매출 22조 원 이상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 BTS,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 음원 공개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IONIQ) 론칭 캠페인 일환으로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아이오닉 브랜드 음원을 31일 선보였다.

아이오닉(IONIQ) 브랜드 음원인

‘IONIQ: I’m on it(아임 온 잇)’은 이날 오후 7시(이하 한국 시간) 현대차 월드와이드 사이트를 통해 배포된다.

방탄소년단 각 구성원 개인의 시간과 경험을 가사로 담아 현대차가 새롭게 선보이

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비전을 전달한다.

아울러 현대차 라이프스타일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에게는 방탄소년단 멤버별 메시지와 음원이 담긴 카세트테이프 모양의 한정판 MP3 플레이어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GMA 글로벌 고객만족도 평가 대한항공 16년 연속 항공 1위

대한항공이 16년 연속 글로벌 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진행된 한국글로벌경영협회(GMA) 주관 ‘2020년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우수기업’ 평가에서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GCSI는 고객들의 품질 만족도, 글로벌 역량 및 고객충성도 등을 평가해 매년 부문별 최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객들의 항공여행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항공기에 대한 철저한 기내소독으로 안전한 기내 환경을 유지하고, 법적 기준인 월 1~2회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내선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모든 여객기에 도입된 HEPA필터를 통해 침방울(비말), 에어로졸, 바이러스를 모두 걸러 가열 멸균된 청정한 공기를 기내에 공급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기다림도 안심되도록  
긴급출동 기사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보험이 더 쉬워지도록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해요

마음껏 도전하도록  
공유 주방에서의 새로운 출발도 든든해요

우리 가족 평생 든든하도록  
작은 질병부터 큰 사고까지 보장받아요

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은퇴 후 버킷리스트 실행 자금을 마련해요

# 든든하기

오늘의 소소한 걱정이 안심이 되도록  
내일의 막막한 불안이 희망이 되도록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당신의 모든 길을 함께 가는  
KB금융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어  
어떤 길을 걷든 든든합니다

오늘의 안심부터  
내일의 희망까지

**보험도 역시 KB**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 KB국민은행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터시스템 | KB신용정보



# 느슨한 환경규제에... '친환경 선박유' 안 팔리네

코로나 이후 항구서 제재 안해  
저렴한 고유황유 판매 증가세  
탈황설비 늘린 韓 정유 '악재'

정유사들이 올해 초 야심 차게 도입한 저유황 중유(LSFO) 사업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예상보다 느슨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오히려 고유황 중유(HSFO)의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탓이다.

31일 싱가포르 해양 항만청에 따르면 7월 기준 선박 연료유로 쓰인 HSFO(싱가포르 380CST 기준) 판매량은 6월보다 24.65% 증가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판매 비중은 같은 기간 총 병커C유 판매의 24%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8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HSFO란 연료에 황이 2% 이상 함유된 유류를 말한다. IMO는 올해부터 선박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아래로 낮

추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HSFO 수요가 크게 줄고 황 함량을 줄인 LSFO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분야 정보분석업체 S&P 글로벌 플래츠에 따르면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LSFO와 HSFO의 가격 스프레드는 1월 평균 298.9달러(100만 톤당)에서 8월 64.98달러까지 좁혀졌다. 이는 해당 기간 LSFO의 수요가 줄어든 반면, HSFO의 수요는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HSFO 수요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본 정유사들이 일찌감치 LSFO 재고를 쌓으면서 가격이 올라갔었다"며 "하지만 올해 막상 상황을 보니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선박유 동향이 애초 예상과는 다른 건 IMO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유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항구마다 기준을 세우고 검사를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규제를 강화

하기는커녕 풀어주는 분위기가 됐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스크러버를 장착해 황 배출을 낮춘 배들은 HSFO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배들까지도 그냥 HSFO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일찌감치 LSFO 관련 투자를 해온 국내 업체들에는 '악재'다. SK에너지는 1조 원을 투입해 갑판잔사유 탈황설비(VRDS)를 새로 지었다. 글로벌 정유업계에서는 한국 정유사들의 LSFO 준비 상황이 가장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LSFO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요를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언젠가는 HSFO가 퇴출당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코로나19 등 변수 때문에 단기간에 LSFO 수요를 늘리기는 어렵고 수익성도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그때까지는 가동을 조정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내 갑판잔사유 탈황설비. 원유 찌꺼기를 이용해 유해물질이 적은 저유황 중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사진제공 현대오일뱅크

## '코로나의 역설' 의료기기 매출 감소

삼성메디슨 상반기 172억↓  
영업이익은 소폭 성장  
"온택트 전환 속도 높여 극복"

삼성메디슨의 올 상반기 매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회사는 온택트(Ontact) 전환 속도를 높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삼성메디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상반기 매출 1504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3억 원) 늘었지만, 매출은 172억 원 줄었다. 초음파 기기 시장 규모가 큰 중국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한 탓이다.

회사 측은 "주 고객인 병원이 코로나19 관련 폐·호흡기 질환의 진단 및 감염 예방에 우선 대응하면서 초음파 기기의 시장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다"며 "또 병원을 방문하는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는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메디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근 출시한 산부인과 프리미엄 제품과 영상의학과 프리미엄 제품으로 대형병원 진입

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에도 국내 시장과 러시아 지역은 판매가 늘었다. 러시아 등에서는 이동형 초음파기기 중심의 응급진단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회사는 긴급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CIS(독립 국가 연합) 지역은 작년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또 국내시장에 국한해 판매 대항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는 상반기 국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용 긴급 수요가 발생하면서 판매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이 제품은 폐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하반기 시장도 불투명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병원의 코로나19 관련 폐호흡기 진단·치료 장비 중심의 구매 지속으로 전 세계 초음파시장 수요회복 지연이 예상된다. 삼성메디슨 초음파 기기 판매 역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메디슨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업무방식 혁신 등 사업체질 개선을 통한 위기 극복을 추진 중"이라며 "임상 세미나 및 국내외 유통망 교육, 대면 활동의 온라인전환 등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동아오즈카

## 지중해의 순수그릭커피 이카리아

세계 5대 장수촌인  
그리스 이카리아 지역 추출법을  
사용한 프리미엄 그릭커피

1 클래식한 그리스식 추출법  
원두를 끓여 용기에 넣어 물을 붓고 저으며 끓이는 클래식하고 진한 추출법

2 풍부한 바디감과 깔끔한 맛  
콜롬비아 수프리모 70%, 에티오피아 시다모 30%를 블렌딩한 프리미엄 커피

3 Three Step Filtered Greek Coffee  
3번의 여과 과정을 거친 폴리메놀이 풍부한 그릭추출 (폴리메놀 함량 560mg)

IKARIA  
COFFEE



##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 신제품 140만원부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김치냉장고인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19종이나 되는 종류의 도어 패널을 선택할 수 있다. 넉넉한 수납공간이 장점인 프리스탠딩 4도어와 키친핏이 적용돼 빌트인 효과를 낼 수 있는 3도어·1도어 등 총 3가지 타입으로 출시했다. 소비자의 취향과 주거 공간에 따라 최적의 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김치냉장고를 다용도 냉장고로 활용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무르거나 변질하기 쉬운 뿌리채소·열대과일을 위한 감자·바나나 모드 △보관이 까다로운 곡류나 와인을 최적으로 보관하는 모드 △육류나 생선을 살얼을 상태로 신선하게 보관하는 육류·생선 모드 등 17가지 맞춤 보관 기능을 갖췄다.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출고가 기준 제품 타입과 용량에 따라 140만~599만 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엑셀러레이터 벤처펀드’ 이르면 이달 초 나온다

벤처법 시행으로 엑셀러레이터도 벤처펀드 결성 가능  
‘창업기획자’ 등록 매년 증가세... 연내 300개 넘을 듯  
초기 투자의무비율 낮아져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늘어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조성하는 대규모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이 9월 최초로 탄생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시행한 ‘벤처투자촉진법(벤처법)’에 따라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벤처펀드가 이달 처음으로 결성된다. 엑셀러레이터가 조성하는 1호 벤처펀드인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법 시행 전부터 준비하는 곳이 있었고 현재 2곳이 진행 중”이라며 “유한책임출자(LP) 모집 과정을 고려하면 9월 초 1호 벤처펀드가 탄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엑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촉진 전문가를 뜻한다.

벤처법 시행 이전에 엑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다. 벤처법은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VC)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에서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조성을 허용했다. 다만, 자본잠식률 50% 미만의 엑셀러레이터에만 벤처펀드 결성이 허용된다. 펀드 결성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가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엑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벤처법 시행

엑셀러레이터 누적 등록수  
(단위: 개)



전부터 벤처펀드 조성에 주목했다. 벤처펀드를 결성하면 40%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엑셀러레이터들은 투자금 회수 면에서 더 유리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전에는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고, 그 경우 100% 초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다만, 이러한 조건도 벤처법 시행으로 완화됐다. 개인투자조합의 초기창업자 투자 의무 비율도 50%

로 낮아진 것이다.

벤처 투자자 간의 경계를 허물어지면서 벤처법 시행 전후로 엑셀러레이터 등록 수도 늘고 있다. 2017년 53개였던 엑셀러레이터는 2018년 누적 133곳, 2019년 214곳으로 늘었다. 7월 말 기준 누적 267곳에서 8월 25일 기준 273곳으로 늘었다. 엑셀러레이터 등록 뒤 경영난에 의해 자진해서 등록을 취소한 5곳을 제외한 수치다. 중기부는 올해 12월에 전체 엑셀러레이터 수가 300곳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는 규모에 더해 기존의 벤처투자를 하지 않았던 곳에서 신규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한 데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업체 대응계약, 한국표준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중기부는 벤처법 시행으로 엑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초기창업자 투자의무비율이 100%에서 50%로 낮아진

만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엑셀러레이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개인투자조합 수는 1252개로 그중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한 조합은 219개를 차지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은 2017년 27개, 2018년 41개로 순증했고, 2019년 82개, 올해는 7월까지 64개 순증했다. 매해 거의 2배가량씩 순증한 셈이다.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본 계정(자체 자본금) 투자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엑셀러레이터 투자에서 본 계정 투자와 개인투자조합 비율이 2017년만 해도 75대 25였으나 현재는 25대 75로 역전됐다”며 “벤처법 영향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늘어나 전체 벤처투자 규모가 늘고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알뜰폰 구매 손쉽게”... ‘알뜰폰 허브’ 리뉴얼

16개 사업자 요금제 비교·검색  
맞춤형 가입 등 편리성도 높여



‘알뜰폰’과 ‘자급제폰’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시스템이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사진)’를 전면 개편해 9월 1일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 핵심은 소비자가 16개 알뜰폰 사업자 요금제를 손쉽게 비교해 맞춤형 통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급 단말기’ 등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가계통신비 경감의 최고 조합인 ‘알뜰폰+자급폰’ 결합을 대폭 강화했다.

알뜰폰은 통신 3사 스마트폰 요금 서비스보다 최대 50% 저렴한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제공하는 중소 업체 휴대전화 서비스를 말하고, 자급제폰 역시 통신 3사 통신비 가입 없이 삼성 전자나 LG전자에서 생산·판매하는

단말기만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용자들이 사용하길 원하는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량 범위를 직접 설정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제를 비교·검색하고, 맞춤형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편리성도 높였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 자급제 신규 단말기 사이트를 비롯해 주요 중고단말기 판매사이트와 연계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알뜰폰허브 한번 방문으로 알뜰폰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알뜰폰허브 개편에 맞춰 국민카드와 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 대상으로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만 5000원 이상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도 10월 중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허브 첫 화면과 개통신청 페이지에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배치해 이용자가 손쉽게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알뜰폰허브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알뜰폰 이용접근성이 향상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카카오TV' 예능 라인업.

사진제공 카카오M

## ‘카카오TV’ 출격...OTT 판도 흔들까

10~20분 길이로 세로형 제작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부문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카카오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진출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해외 플랫폼과 경쟁해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을 통해 9월 1일 OTT 플랫폼 ‘카카오TV’를 출시한다. 출시와 함께 ‘야만자’, ‘연애혁명’ 등 디지털 드라마 2개와 ‘전경규’, ‘내 꿈은 라이언’, ‘카카오TV 모닝’, ‘페이스아이디’, ‘아름다운 남자 시벨름’ 등 5개의 예능 콘텐츠 등 총 7개 타이틀을 공개한다.

카카오TV의 콘텐츠는 기존 OTT와 달리 10~20분 내외로 상대적으로 짧게 구성됐다. 카카오TV는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샵)탭’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일부 콘텐츠는 모바일 시청 환경을 고려해 세로형으로 제작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TV의 가장 큰 경쟁력이 바로 이 모바일 최적화라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카카오톡을 사용하다가 손쉽게 카카오TV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다.

특히 10~20분 내외의 숏폼 형태로 제작해 틈틈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이용자들이카카오톡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기 용이하도록 만들다보니 영상이 짧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OTT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와의 경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는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며 우위에 있다. 하지만 카카오의 자체 IP인 카카오프렌즈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가능성,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의 작품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기에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숲 등 연예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만큼 소속 배우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도 가능할 전망이다. 콘텐츠가 다양해지면 OTT 시장의 다크호스에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는 다양한 IP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OTT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KISA,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사원증 도입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사원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분산신원증명(DID)은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인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모바일사원증은 사원증 발급과 출입 이력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 스마트폰에 암호화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 방식의 사원증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KISA는 스마트폰의 근거리통신 기능과 QR코드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비접촉 방식의 모바일사원증을 구현해 사무실 출입뿐 아니라 도서대출, 구내식당 이용 등 부가서비스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업무포털을 사용할 때 본인인식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하는 2차 인증 기능을 지원해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방송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요금 승인제→신고제 완화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은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시장점유율 규제는 유료방송 경쟁촉진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폐지했다.

또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하며 자율적 품질 개선을 유

도했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자유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기보, 특허공제대출 금리 1년간 0.5~1%P 인하

기술보증기금(기보)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공제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출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한다.

기보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동안 특허공제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비용대출은 1.25%, 경영자금대출은 2.25%의 금리를 1년간 제공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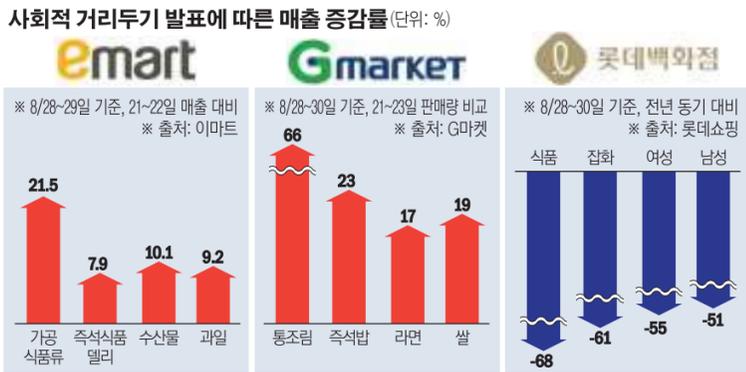
했다고 31일 밝혔다. 각각 7월말 기준으로 0.5%포인트, 1.0%포인트 인하했다.

특허공제사업은 국내의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및 IP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기보는 작년 8월 특허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지난 7월 말부터 특허공제대출을 시행 중이다.

이대원 기자 leedw@

# “옷 대신 생필품”... 거리두기에 마트·백화점 ‘히비’

라면 등 가공식품 매출 21% ↑  
SSG닷컴 배송은 30% 늘어나  
패션 위주 백화점 매출 반토막  
‘3단계’ 우려에 저장소비 늘어



높은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전국 유행하던 지난 2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0일 오후에 들어서며 31일 자 새벽배송이 모두 마감됐고, 3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화요일 새벽배송도 마감이 임박했다.

마켓컬리 역시 30일에는 주문 조기 마감에 이어 재고 소진 상품까지 발생했다. 이 업체는 이날 오후 10시 경 상품을 주문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오류가 갑작스럽게 발생해 냉장 주문 상품 일부가 미출고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냉장 상품 중 미수령된 상품이 있으면 빠르게 주문 취소 후 결제 수단으로 환불을 하겠다”는 안내를 했다.

G마켓에서도 28-30일 통조림 판매량은 전주(21-23일)에 비해 66% 늘었고, 즉석밥은 23% 뛰었다. 라면과 쌀 판매도 각각 17%,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11번가의 쌀 판매량은 전월 같은 기간(7월 24-26일)과 비교해 43% 증가했고, 냉장·냉동식품도 42% 더 팔렸다. 즉석밥(28%)과 생수(35%)를 찾는 소비자도 늘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가정주부 이 모씨(40)는 “SSG닷컴과마켓컬리에서 원하는 날짜 배송이 어려워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대거 주문해줬다”면서 “확진자만 들렀다 하면 휴업하는 통에 필요한 시점에 인근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유치원 휴원으로 아이들도 집에 있게 되면서 생필품을 미리 많이 사둔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생필품보다는 패션 의류 등을

주로 파는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는 크게 줄었다. 롯데백화점의 28-30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다. 식품 매출이 68% 줄어든 것을 비롯해 잡화(-61%), 여성(-55%), 남성(-51%) 매출도 빠졌다. 코로나19에도 백화점 매출을 지탱하던 명품도 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매출은 21.4% 감소했다. 여성 패션(-26.4%)과 남성 패션(-22.1%), 가전(-19.2%), 명품(-15.8%) 등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부진했다. 현대백화점의 29-30일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3% 역성장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이어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물론 확진자 발생으로 매장들이 불시에 문을 닫아 원하는 시점에 상품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확진자 발생으로 이마트의 네오003 물류센터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서울 영등포구 등에 새벽배송이 일시적으로 중지됐고, 식품매장 직원 확진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조기 영업종료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생필품 판매 특성상 영업 중단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축 영업과 문화센터 폐강 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이미 9월 가을 학기 문화센터 개강일을 10월로 미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3단계 격상 시 영업시간 단축과 문화센터 연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야외 테이블은 취식 가능... 개인 카페 손님 복적 거리두기 2.5단계 곳곳에 ‘구멍’

빵집 안에서도 커피 마셔  
사각지대 많아 실효성 논란



카페형 편의점은 31일 일부 축이 취식 중단 권고를 하기 전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 주류 판매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초기부터 뼈격거리고 있다. 모임과 집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들을 무색케하는 정책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규제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매장 이용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식당과 주점의 매장영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커피전문점과 야외 테이블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4시간 영업을 가능한 편의점의 카페형 매장은 최초 사회적거리두기 2.5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첫 주말 이례적인 매출 증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 규제와 별도로 편의점 본사들이 저녁 9시 이후 카페형 점포의 매장내 영업을 금지하는 자정안을 내놨지만 정부 규제는 반쪽자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2.5 시행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영업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취식이 가능한 카페형 편의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본사 차원에서 오후 9시 이후 매장내 취식금지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 시행 첫 날인 30일에는 주말이 겹쳐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 결과 30일 하루동안 편의점의 주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식당과 주점에서 9시부터 영업을 중단하자 술 자리를 규제 대상이 아닌 편의점으로 옮겨가거나 흡연을 택한 이들이 늘었다는 반증이다. GS25에서는 30일 하루 동안 소주 매출이 전주 동기 대비 14.6%, 맥주와 와인도 각각 6.1%,

7.9% 늘었다. 안주류도 12.2%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같은 기간 소주, 양주, 막걸리의 매출이 나란히 두 자릿수 신장했다.

편의점 업계는 사회적거리두기 2.5가 주말에 발효되면서 시행 첫 날인 30일 가맹점에 영업시간 관련 공지를 하지 못해 매출이 늘자 당혹감을 드러내며 이튿날인 31일 부랴부랴 취식공간 이용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로 권고한 상태다.

규제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가맹점의 경우 실내 이용이 금지되자 외부 테라스와 야외에 테이블을 비치하는 ‘썬수’ 영업을 한창이다.

영등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야외 매대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매장내 인접한 인도 일부를 점거해 테이블을 비치하기도 했다. 규제에 자유로운 개인 커피전문점들에는 삼삼오오 모여앉은 직장인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눈다.

단순히 ‘프랜차이즈’라고 내부 취식을 금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에서 나온 규제라며 규제 기준이 애초부터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장 빵집만 해도 커피를 팔지 않느냐”면서 “‘3밀’(밀폐·밀접·밀집)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밀집도 등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2.5단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김혜지 기자 heyji@

## “향후 20년은 미래 먹거리 선점하는 수확의 시간”

창립 20주년 CJ프레시웨이  
“트렌드 파악 초격차 역량 확보  
디지털 전환 투자에 앞장서야”



문중석 CJ프레시웨이 대표.

문제점을 바로잡아 소비자 후생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년이 시장 선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간(開墾)의 시간이었다면, 향후 20년은 시장을 키우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수확의 시간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국내 B2B 식자재 유통 시장은 약 38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외형은 거대하지만, 기업화 수준은 10% 남짓에 불과하다.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약 2만 개의 사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과거부터 이어온 유통망과 시스템으로 사업을 영위 중이다.

국내 식자재 유통 경로는 6단계나 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과도한 마진이 붙는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 따르면 식자재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53.4%다.

CJ프레시웨이는 2003년 전사자원관리 시스템(ERP)을 적용하고 식품안전센터와 전국 주요지역에 물류센터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적시 공급’을 확보하자 성장세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2005년 약 3500억 원이었던 매출은 2010년 1조 원을 돌파했다. 2015년에는 2조 원,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3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CJ프레시웨이는 고령 인구 증가세에 따른 돌봄 공백의 문제점을 파악해 실버 사업을 준비해왔다. 2018년에는 앞서 2015년 론칭했던 시니어 전문 식자재 브랜드 ‘헬씨누리’를 토탈 푸드케어 브랜드로 통합·확장했다.

키즈 식자재 시장도 선도 중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미 2014년 키즈 전용 브랜드 ‘아이누리’를 론칭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유통에 매진해왔다.

CJ프레시웨이는 해외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업계 최초 칠레에 개설한 사무소는 페루, 콜롬비아 등 남미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김혜지 기자 heyji@

## 부드러운 두부가 컵라면에 풍당

농심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

뉴욕타임즈가 ‘세계 최고의 라면’으로 선정한 신라면블랙이 라인업을 확대한다. 농심은 용기면 신제품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즐기는 인구가 늘자 용기면으로 든든한 한끼가 가능하도록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를 선보이게 됐다.

올해로 출시 10년째를 맞이한 신라면블랙은 프리미엄 제품에 붙는 ‘블랙라벨’에서 착안한 네이밍으로 기존 라면과 차별화를 꾀해 왔다.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는 다른 라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 건더기를 넣어 차별화했다.

농심은 김치찌개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



가 두부라는 점에 착안해 겉은 탱글탱글하면서 씹으면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를 개발했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는 점에서 착안해 돈골로 국물맛을 완성한 것도 이 제품의 특징이다.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를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해 고온에서 끓여야 깊은 맛을 내는 김치찌개의 맛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신라면블랙사발 두부김치는 뜨거운 물을 붓고 전자레인지(1000w 기준)에 2분간 조리하면 완성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9·10월 만기 2.4兆... 비우량 회사채 '폭탄' 터지나

‘A급 이하’ 회사채 이달에만 1조7420억원 만기 도래  
코로나 재확산에 기업들 차환 부담... 신용 경색 우려  
기관투자자 ‘AA급’ 우량 회사채 투자는 지속될 전망

9,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A’급 이하 비우량 기업 회사채가 2조4000억 원이 넘는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상환에 큰 문제가 없지만, 비우량 채의 상황은 비교적 나이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시장 신인도가 취약한 업종 기업은 채권 만기 연장(차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31일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투자는 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금융회사·공기업 제외)이 9월과 10월에 갚아야 할 회사채는 8조 8864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A+’ 이하 채권은 2조

4270억 원(27.31%)가량이다. 당장 9월에는 1조7420억 원에 달한다. SK(주), 에스오일, KT, CJ대한통운, KT, GS글로벌 등이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이 9월 만기가 도래한다. 이 중 많은 기업이 상반기에 차환을 위한 회사채를 발행했다. 플라시스스위핑(BBB) 500억 원, 한신공영(BBB) 410억 원, 한독(BBB+) 500억 원, SK매직(A0) 800억 원, 금호석유화학(A0) 140억 원 등도 상환해야 한다.

10월에는 이보다 적은 6850억 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신용경색이

주요 회사채 등급별 만기 (단위: 억 원)

구분	9월	10월
AAA	1조2756	7755
AA급	2조2480	1조5700
AA+	5000	6100
AA0	1조360	4800
AA-	7120	4800
<b>A급</b>	<b>1조4410</b>	<b>5300</b>
A+	3550	4450
A0	4700	500
A-	6160	350
<b>BBB급</b>	<b>3010</b>	<b>1550</b>
BBB+	1100	980
BBB0	1410	570
BBB-	500	0
사모 등	2876	3026
합계	5조5533	3조3331

걱정이다. 실제 시장에서 등급 간 차별화는 여전히다. 상반기 기준 AA등급 이상 수요예측 경쟁률은 3.5대1에 달했다. 반면 ‘A0’ 등급 이하는 평균 1.9대1에 머물렀다.

한화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일부 기

업들은 차환 부담이 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회사채 강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기관들의 ‘AA’급 우량 회사채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업 등 우량 회사채 상환 여건은 나쁘지 않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 가동을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등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들도 자구노력과 지원에 살아남았을 정도다.

기관들도 장기 우량채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삼성증권 김은기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은 높아지고 발행 스프레드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발행 스프레드는 종목별 차별화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년에 비해서 5년 이상 장기 회사채 발행 스프레드가 낮았다. 특히 10년 이상 조장기물의 발행 스프레드는 꾸준히 낮

은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가 문제다. SPV 등 정부 지원 덕에 어느 정도 정상화를 이룬 회사채 시장이지만 코로나 여파가 심각해지면 기관들이 몸을 낮출 수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부담이다. 추경을 하면 정부는 보통 채권을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데 국고채 매도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신용증권시장에서는 실물경제 충격 우려로 비우량물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미·중 무역분쟁 재부각으로 대내외 여건이 바뀌면 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임원 연봉 1위’ 공공기관은 국립암센터

(3억5986만원)

한국투자공사·예탁결제원 順  
전체 임원 연봉 1억5930만원  
인상률 2%... 일반직원의 3배  
KIC사장 4억5201만원 ‘연봉킹’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상위 10곳 현황

기관명	2019년	전년대비 증가율
국립암센터	3억5986만 원	1.5%
한국투자공사	3억5487만 원	5.4%
한국예탁결제원	3억4588만 원	2.9%
중소기업은행	3억4345만 원	2.8%
한국산업은행	3억2276만 원	2.8%
한국수출입은행	3억1745만 원	2.8%
한국해양진흥공사	2억6148만 원	62.9%
국립중앙의료원	2억5263만 원	1.7%
기초과학연구원	2억4865만 원	0.8%
한국무역보험공사	2억3919만 원	9.3%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O) 상임임원평균 연봉 게시 291곳 대상

지난해 291개 공공기관 상임 임원(기관장, 상임 이사·감사 등)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빅3’는 국립암센터·한국투자공사(KIC)·한국예탁결제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이 받아온 돈은 평균 1억5930만 원이었다. 이들 임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약 2%로 일반 직원 0.6% 보다 3배 가량 높았다.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상임 임원 평균 연봉을 게시한 291곳 대상)의 상임 임원 평균보수는 전년보다 약 2% 늘어난 1억593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립암센터의 상임 임원 평균보수가 3억5986만 원으로 첫 손에 꼽혔다. 다만 국립암센터는 상임 임원이 기관장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3위를 차지한 한국투자공사(3억5487만 원)와 한국예탁결제원(3억4588만 원) 임원들이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은행(3억4345억

원), 한국산업은행(3억2276억 원), 한국수출입은행(3억1745만 원) 등이 평균 연봉이 3억 원대였다. 2018년에는 평균 연봉이 3억 원 넘는 공공기관이 총 5곳이었지만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되면서 총 6곳으로 늘었다.

아울러 평균연봉 2억 원을 넘는 곳은 31곳으로 전년 보다 7곳 증가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2억6148만 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2억3508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2억1469만 원), 한국중부발전(2억1211만 원)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이끄는 기관장(341곳)만 따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지난해 4억5201만 원을 받아 3년 연속(2017~2019년) ‘연봉왕’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 사장(4억1134억 원)과 중소기업은행장(4억884만 원)은 연봉 4억 원을 넘기면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장이 각각 3억842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국립암센터(3억5986만 원), 기초과학연구원장(3억1884만 원), 기술보증기금(3억415만 원) 사장도 3억 원 넘는 연봉을 받았다.

이처럼 공공기관 연봉 증감 배경에는 기본급보다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인 경우,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6월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 임원(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을 대상으로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납부를 권고했다. 단일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과급 일부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고통에 동참하도록 공공기관, 공기업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회 정무위원장〉

## 금투업계 찾은 윤관석 “뉴딜펀드 적극 참여를”

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분쟁조정안, 시장 위축 우려”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업계 대표간 가진 간담회에서 “감독당국 결정에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며 “상당수 전문가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판매회사가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주어야 돈이 부동산 같은 데로 몰리지 않고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당정이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 구상 역시 민간의 자본시장이 적극 참여해야만 코로나로 경색된 우리 경제가 유동성 함정이나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무위원장은 “진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규제산업인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말을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경제를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하는데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져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대신증권 “크레온 계좌로 같이타면 30만원 축하금”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보유한 국내의 상장 주식이나 ETF를 온라인 주식거래서비스인 크레온 계좌로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타사 대체입고 이벤트 시즌3’을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른 증권사에 있는 국내의 상장 주식이나 ETF를 크레온 계좌에 500만 원 이상 입고한 뒤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된다. 출고수수료와 최대 15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거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축하금을 2배 적용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진제곱 대신증권

## 일임형 ISA, 7월 누적 수익률 1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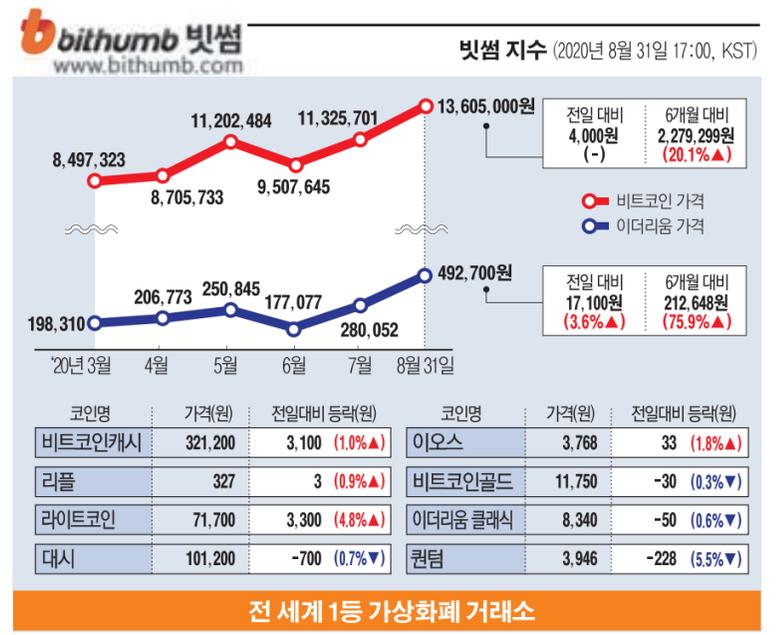
4개월 연속 상승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 14.86%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 25곳이 출시한 일임형 ISA 상품 206개의 모델 포트폴리오(MP) 운용 성과를 집계한 결과로, 한 달 전보다 3.15%포인트 오른 것이다. 금투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주요국의 정책 대응 및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와 함께 ISA 누적 수익률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품 유형별 누적 수익률은 초고위험 상품이 24.88%로 가장 높았고, 고위험(19.76%), 중위험(13.06%), 저위험(8.95%), 초저위험(6.90%) 순으로 뒤를 따랐다. 206개 MP 전체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96%에 해당하는 196개의 MP가 5%를 초과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2년 실거주·안전진단 강화에...속도내는 재건축

서울 강남·북 잇단 추진에 몸값 경증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 추진위 설립 더뎠던 상계주공도 안전진단 재검열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재 확산에도 소리 소문 없이 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가든아파트(삼익맨션)는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고, 노원구 상계주공 단지들은 잇달아 안전진단 추진에 나섰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안에 재건축 조합신청을 마쳐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안전진단 통과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전'에 나서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 피하자'...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진행 '박차' =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션은 지난달 27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단지는 최종 재건축 동의율이 83%에 달할 정도로 주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진행 현황

단지명	위치	진행 단계
삼익가든	강동구 명일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미성1·2차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동의서 모집
상계주공6단지	노원구 상계동	예비안전진단 통과
상계주공2·7단지	노원구 상계동	안전진단 추진 중
미미삼	노원구 월계동	안전진단 추진 중
월계삼호4차	노원구 월계동	안전진단 추진 중

※ 미미삼: 미릉·미성·삼호3차



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뜨겁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 상가통합)은 지난달 23일자로 재건축 동의율 56%를 넘겼고, 강남구청에 정비구역 사업 추진 신청을 완료했다. 재건축 기대감에 사업 추진 단지는 연일 몸값이 뛰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선 풍납동 미성아파트(1985년 준공·275가구)와 송파동 한양1차(1983년 준공·576가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1988년·5540가구) 등 3개 단지가 재건축 사업 관련인 정밀안전진단에 시동을 걸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순께 안전진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들이 이처럼 안전진단을 서두르는 건 내년 상반기부터 1·2차 정밀안전진단의 선정·관리 주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돼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다. 이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3억 원에 달하는 정밀안전진단 예치금 모금을 일주일여 만에 마무리했다. 한양1차와 풍납 미성아파트는 용역업체 선정을 마친 뒤 10월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3곳 중 가구 수가 적은 풍납미성이 가장 먼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풍납미성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그간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묶

## 재건축 진행 단계 개요



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풍납동 주택시장엔 새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지지부진' 강북도 재건축 급물살...노원구 상계주공 '들썩' = 강북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총 4만 가구 규모 노원구 상계주공 단지들은 일제히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상계주공16단지는 이달 중으로 예비안전진단 등

의서를 걷을 예정이다. 9단지와 14단지는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단지와 7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접수에 나선 상태다.

앞서 상계주공6단지는 예비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5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노원구 상계동의 경우 예전에는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더뎠지만, 최근 주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던 노원구 월계시영 내 '미미삼(미릉·미성·삼호3차)'도 다시 예비 안전진단 신청서를 받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8%(313가구) 수준이다. 또 월계 삼호4차 역시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모집을 시작한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주요 단지들의 잔결음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자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남다른 능력 to 색다른 내일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 부동산 감독원·표준임대료... 이달 정기국회서 판가름난다

### 與 입법 가속...치열한 공방 예상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부동산 감독원' 설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전월세값)를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법안 논의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먼저, 부동산 감독기구는 정부가 내년 출범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당정이 정기국회에서 가장 우선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설치 검토를 지시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부동산 감독기구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규율 법을 만들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의가 아닌 여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에선 부동산 감독기구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국토부도 감독기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왜 필요한지 설명은 부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로 거듭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은 물론, 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 등까지 들여다 볼 가능성이 크다. 감독기구의 권한이 커 여당 내부에서도 조율 의견이 있는 만큼 여야 간의 견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과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에 힘을 실으려고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 제도는 사·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일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여당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도 베풀고 있다. 현행법상 조정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발생할 전월세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통합당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HUG 분양보증 독점 해소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낸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 법안' 등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공적의무 위반' 임대사업자 잡아낸다

### 정부, 이달부터 연말까지 합동점검

정부가 이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적기간을 고려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 근저당 악용해 P2P 사기 피해자 협박 헤라펀딩 대표 공갈미수 혐의 피소

“손해배상액 깎아주지 않으면 압류 부동산 임의 경매” 큰소리

부동산 전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 업체 ‘헤라펀딩’ 사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A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횡령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30억 원 수준이며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피해자들은 A 씨를 대상으로 2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A 씨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지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이며, A 씨가 대출해준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26억 원 상당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모 법무법인 소속 C 씨를 통해 헤라펀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해 손해배상 판결액 중 10억 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A 씨)이 가져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A 씨는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부지를 임의경매 신청하겠다고 했다.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3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피해자들은 손실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뒷돈’을 주면 피해자금 회수를 돕겠다

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가능했던 것은 헤라펀딩의 ‘이상한’ 투자방식 때문이었다. 헤라펀딩은 처음 A 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했으나 이후 헤라대부중개, 헤라핀테크 등의 관계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영업을 해왔다. A 씨 투자금은 법인으로 모집했지만 담보 설정은 개인 명의로 했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이 배상받으려면 A 씨가 자신의 개인명의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자금회수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박경수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기자 pgy@



‘코로나 이겨낸 벼’ 31일 부산 강서구 죽동동 김경양 씨 논에서 풍년을 알리는 올해 부산 첫 벼 베기를 하고 있다. 수확한 벼는 도정 과정을 거쳐 ‘코로나19 이겨낸 쌀’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100포(4kg짜리)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부실대학 13곳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

경주대 등 재정지원제한 지정  
교육부 “진학 희망자 주의해야”

4년제 일반대 7곳과 전문대 6곳 등 13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의 내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등 법인 책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은 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제한 I 유형에 경주대·신경대·제주국체대·한국국체대·한려대·광양보건대·서해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9개 대학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의 2021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 II 유형에 포함된 금강대·에원예대·고구려대·서라벌대 등 4개 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은 총 281 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5~8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대법 “노조 전임자도 연장·야간수당 지급”

“단협 명시했다면 따라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다. 2010년 단체협약으로 이 협정은 2012년 6월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4110원이

로 올랐고, 2011년에는 4320원이 됐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수당에 대해 원심 계산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을 반영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를 적용해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저시급액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

를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정한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단체협약은 노조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사무장은 월 3일의 전일업무를 인정하고 각 인정시간에 대해 운전기사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단체협약은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남남**  
www.nanam.net nanam



# “지하철 7호선,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

# 서울 ‘도시재생’ 8곳에 집수리전문관 보낸다

이달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  
오전 10시~오후 4시 허용  
 시내버스도 휴대승차 테스트  
“자전거, 교통수단 연계 확대”



이달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 승객은 평일에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동차를 탈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서울지하철 전동차. 사진제공 서울시

앞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은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를 시범운영했다. 서울시는 이달 시내버스에도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개시하면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요일, 호선과 관계없이 상시 휴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기간 경춘선(코레일) 상봉~춘천 구간에서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

다.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 주요 거점 역에 시설 개선도 완료했다. 주요 거점 역은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이다. 아울러 자전거를 가지고 계단을 쉽게 오

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림안내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와 일반 승객과의 동선도 철저히 분리했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애플리케이션 ‘도타지하철’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 경사로가 있는 출구, 환승주차장 위치를 안내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전거가 언택트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는 만큼 ‘자전거 친화 도시’ 구축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6월에 서울 전역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자전거 대동맥을 구축하는 ‘CRT 핵심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세계적인 자전거 친화 도시 추세에 맞춰 자전거를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주민 찾아가 주택 보수 상담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 8곳의 지속적인 집수리를 돕기 위해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재생 선도·시범지역’은 △창신·송인 △해방촌 △가리봉(선도사업) △성수 △신촌 △장위 △암사 △상도(시범사업)이다. 이곳들은 전면 철거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시작을 알린 상징성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건축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주택에 대한 진단부터 대수선, 개·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주민 눈높이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거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용자’ 사업 신청이 대폭 늘어난 점을 대표적인 근거로 꼽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6개월간 6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해 400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해 서울시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용자 사업’ 전체 신청 건수의 약 30%를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 6개 지역이 차지했다. 집수리전문관들이 주택 성능 향상을 위해 개량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동시에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용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역별 집수리전문관 콜센터를 신규 개설해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동영상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집수리전문관과 가꿈주택사업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양커시설 등 거점공간이 마련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수리전문관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홍인석 기자 mystic@**

## 관악구, 활기 띠는 ‘골목상권’ 조성 박차

## 광진구, 방역 이행 사업장 영업손실 보상

서울 관악구가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악구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한다.

31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영세업체는 관내 94.5%를 차지한다.

관악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악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 상권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2022년 6월까지 지역생활 권역별 대표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주요 골목상권은 △낙성대역역 낙성대역길, 행운길 △대학역역 신림로11길, 신림로28길 △난곡역역 남부순환로151길, 조원중앙로2길 △봉천역역 중앙길, 청룡길 △신림역역 신림동길, 당곡길 5개 권역별 2개소씩 총 10개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악구는 주요 골목상권으로 선정된 10개소에 상인조직화와 컨설팅 지원, 도로·조형물 설치 등 인프라 조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사업 등 자생적 상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향후에는 골목상권별 특성에 따라 특화형, 주민밀착형, 주변 상권 연계형으로 구분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주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총 20억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준희 구정장은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서울 광진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업장 중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확진자가 방문해 폐쇄, 업무정지 등 소독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일반 영업장, 의료기관, 약국 등이다. 소독 명령을 이행하는데 소모된 직접 비용과 폐쇄, 출입금지, 소독 등에 따른 휴업손실금, 장소공개로 일정 기간 방문자 감소로 발생한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상한다.

광진구는 지난달 11일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 결과에 따른 대상기관을 선정해 손실 보상청구서, 대상기관별 제출서류 등 안내문을 1차 우편 발송했다. 이어 31일 2차

우편 발송 후 추가되는 대상기관은 차례대로 안내할 계획이다.

보상을 원하는 대상 업소는 해당 제출서류를 첨부해 광진구 보건의료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이행해주신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STORY 브라보! 음악에 차어스!

PART1.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종장년 음악문화 서베이 헤드라인은 변했어도 소프트한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알아보는 추억의 열쇳말  
PART4. 음악에 반하다 신의 음조원 선율로 듣는다  
PART5. 노래가 삶을 부를 때 인생 오선지 위 음표처럼 박힌 그때 그 노래  
PART6.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장 들고 떠나는 감상여행

더불어 숲  
내 마음에 구슬  
건히면 부처가 보인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안녕, 시골아,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래  
그때엔 그렇게 온전한 인사를 울을 거뿔이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 귀촌한  
김영희(가) 씨. 그의 귀는 얼은 귀였나? 그는  
“농지미 접하며 가져 쓸 수 있으니 뭉만 오라는  
자신의 당백지근한 권유를 받고 설레어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다.

김혜영의 느린 여행  
버려진 시골집의 재탄생 ‘규암리자은길’  
백제고도 부여에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 유적이  
일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백제 유적지 일고  
이렇다 할 관광 콘텐츠가 없어 아쉬웠다. 2년 전  
규암리 규암리 차은로에 ‘자은길 프로젝트’는 마을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 첫 단추가 독립서점 ‘책방서간’이었다. 호기심을 먹고 찾아간 시골  
책방은 꽤 신선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에 다시 가왔다.

생생 부동산 현장 비규제지역에 가려진 ‘일짜’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지역이 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아직 안전하다. 투자할 만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한성신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한성신도시의 잠재된  
미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왔다.

엄마가 엄마에게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육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농사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늦추면 더 받는  
‘볼륨한’ 국민연금

# 코로나 팬데믹 6개월...유럽차 '쇼크' 가장 컸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직접 노출되면서 부침을 겪고 있다. 7월 14일 이탈리아 토리노에 자리한 피아트 브랜드 매장 '미라피오리 모터 빌리지(Mirafiori Motor Village)'에서 피아트 순수전기차 500 EV가 공개됐다. 론칭 행사에 참가한 보도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아래 작은 사진은 같은 날 제41회 방콕 국제모터쇼 현대차 부스 모습. 모델들이 방역을 위해 투명 안전보호기를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바뀌 놓은 모터쇼의 또 다른 모습이다. EPA연합뉴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올해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을 선언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산업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다.

당장 팬데믹 이전인 2월부터 창궐 지인 중국의 이동제한 탓에 단순(저가형) 부품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 유럽 자동차 업체가 잇따라 공장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조립공장 자체가 영향을 받았다.

확진자의 본격적인 증가 이후 국가별로 이동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이 이어졌다. 사실상 자동차 산업은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다.

쇼크의 정점은 2분기에 집중됐다. 각국의 대책이 마련되는 사이, 자동차 산업은 쇼크에 빠졌다. 국가 기반산업을 구해내기 위해 주요 국가는 경기부양책 속에 자동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속속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6개월, 글로벌 주요 국가의 자동차 산업 정책은 이렇게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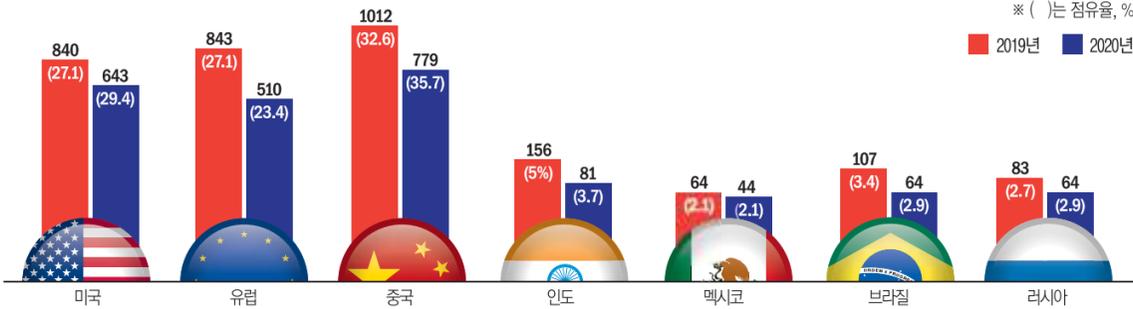
◇세계 시장에서 유럽차 부진, 한국차와 일본차 선전 =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유럽 현지는 물론,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에서 쓸쓸하게 재미를 보던 유럽차가 코로나19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다.

한국과 일본 메이커가 친환경차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과 달리, 한발 늦었던 전기차 전략도 이들의 발목을 잡았다.

폭스바겐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는 1분기에 중국에서, 2분기에는 유럽에서 판매 부진을 겪었다.

상반기 글로벌 시장별 완성차 판매 현황 (단위: 만 대)



※ 출처: 워즈오토  
※ ( )는 점유율, %

**이동 제한에 유럽 판매 40% ↓  
현지 메이커 점유율 동반 하락 속  
한국·일본차가 빈자리 채워  
한발 앞선 친환경차 전략도 한몫**

상반기 유럽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p) 하락하며 유일하게 점유율을 빼앗겼다.

일본차는 전반적인 시장 위축기에도 중국과 유럽에서 선전했다. 특히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전기차 전략이 주효했다. 일본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미국차도 2분기 들어 빠르게 상승하며 1분기 부진을 상쇄했다. 점유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한국차도 선전했으나 여전히 중국시장 부진에 발목이 잡혔다. 중국 부진으로 최대 판매시장이 된 미국에서 시장 평균을 큰 폭으로 웃도는 판매를 보인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국차의 글로벌 판매는 전년 대비 27.7% 줄었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은 작년보다 0.2%p 상승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 판매 선방 = 미국 차 시장은 1분기 말과 2분기 초, 특히 3-5월 판매가 급락했다. 이 기간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감소한 642만 9000여 대에 그쳤다.

5월 중순 이후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와 안정적 유가 등에 힘입어 그나마 감소 폭을 축소할 게 다행이었다.

1월에 전년 대비 0.2% 하락했던 미국 자동차 판매는 2월 들어 8.4% 증가하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팬데믹이 있었던 3월(-37.9%)과 4월(-46.6%) 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시장의 저점은 4월이었다. 5월 판매는 전년 대비 -29.5%를 보였고, 6월(-26.9%)에도 감소폭을 줄이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다만 회복 속도는 더디게 이어지는 중이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리적인 소비방어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 코로나 쇼크 탈출 가장 빨라  
2분기 판매 전년 대비 1.5% 증가  
토종 저가 공세로 한국차 압박  
美, 4월 바닥 찍고 점진적 회복**

미국 차 시장이 23.5% 감소한 가운데 일본 차는 26.1%나 판매가 줄었다. 그나마 한국차는 16.2% 감소세에 그쳐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보다 극심했던 유럽의 C 쇼크 = 상반기 유럽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5%나 감소했다. 정작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중국보다 쇼크는 더 컸다.

전체 유럽 자동차 판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유럽 5개국 판매가 팬데믹(3월 11일) 이후 6월까지 4개월 연속 폭감했다. 국가별 이동제한이 5월까지 이어지면서 2분기 감소 폭은 전기 대비 2배에 달했다.

1분기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EU 자동차 온실가스배출 규제 여파, 2분기 판매는 3월 중순부터 최대 5월까지 이어진 이동제한 등으로 52.2% 감소했다.

브랜드별 판매는 모두 감소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일본, 한국계 자동차가 증가했다. 반면 미국차와 유럽 현지 차들은 시장 평균보다 부진이 더 컸다.

일본차(점유율 11.2%)와 한국차(점유율 6.9%)의 유럽 점유율이 각각 0.4%p와 0.3%p 상승했지만, 70.9% 수준의 유럽차 점유율은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빠른 회복세 보인 중국·설 자리 못 찾는 한국차 = 중국 역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여파 탓에 상반기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0% 감소했다.

코로나19 쇼크가 2-3월에 집중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탓이다. 특히 1분기 판매가 전년 대비 45.7%나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를 일찌감치 받은 만큼, 회복도 일찍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범유행 선언이 이어졌던 3월 중순부터 오히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재기에 나섰다. 자동차 수요도 회복되어, 4월 이후로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2분기 판매는 오히려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반전을 기록했다.

중국의 국가별 브랜드 판매 비중은 유럽과 일본차 판매가 늘어난 반면, 미국과 한국차는 이들에게 시장을 뺏겼다. 중국 토종 브랜드 판매도 줄었다.

점유율 기준 상반기 유럽차 점유율은 전년 24.6%에서 26.2%로 올랐다. 일본차도 22.1%에서 24.4%로 늘었다. 그러나 무역분쟁이 한창인 미국차 점유율은 전년 대비 0.2% 포인트 하한 9.0%에 그쳤고, 지난해 4.7%를 기록했던 한국차의 점유율도 오히려 상반기에 4.2%로 더 줄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는 현지의 고급차 선호도가 뚜렷해지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나아가 보급형 저가차 시장에서는 중국 토종 브랜드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현대·기아차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junior@

## 현대기아차·토요타·테슬라만 2분기 흑자

**포드·폭스바겐·GM 등 적자행렬  
미래차 과도기 증장기 전략 '취침'  
日 정부, 혼다·닛산 합병 제안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다만 2분기 타격은 증장기 전략이 취침되거나 기업의 존폐를 우려해야 할 만큼 이례적으로 폭감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차를 대표했던 혼다와 닛산마저 합병해야 할 처지에 이르

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경영난에 휩싸인 혼다와 닛산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양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8월 16일 "일본 정부가 혼다와 닛산의 합병을 제안했으나 두 회사가 즉각 거부해 논의가 흐지부지됐다"라고 보도했다.

FT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동차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 끝에 정부가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미래차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에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부침을 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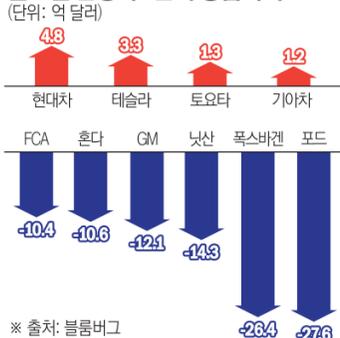
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쇼크가 극에 달했던 지난 2분기에 흑자를 낸 자동차 회사는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미국 테슬라와 일본 토요타가 전부다. 나머지는 모두 손해를 봤다.

2분기 기본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4억 84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차 판매가 전년 대비 30% 안팎 감소했으나 신차 효과와 판매 이윤 향상 등으로 이를 상쇄했다.

이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억 2700만 달러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

글로벌 완성차 2분기 영업이익 (단위: 억 달러)



※ 출처: 블룸버그

고, 일본 토요타와 한국의 기아차가 각각 1억 2900만 달러, 1억 19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낸다.

기업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 토

막이 났지만 다른 경쟁사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나마 영업손실을 막아내며 선방했다.

다른 경쟁사는 모두 참패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은 10억 42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냈고, 일본 혼다(-10억 5700만 달러)와 미국 GM(-12억 1400만 달러)도 대규모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독일 폭스바겐의 영업손실도 26억 3600만 달러에 달했고, 미국 포드 역시 27억 59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손실을 막아낸 기업의 공통분모로 △신차 △신시장 개척 △친환경차 전략 추진 등을 꼽고 있다. 나머지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된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폐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몽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온챌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M&A 고객과 상대방 기대치 모두 만족시켜야”

**법무법인 태평양 PE전담팀 윤성조·김경석 변호사**

코로나 이동제한...크로스보더 딜 자문 지역전문가 중요성 커져  
‘20년 터줏대감’ 윤 팀장+ ‘해외경험’ 김 변호사 ‘어벤져스’ 이뤄

법무법인 태평양이 22년 만에 강북으로 복귀했다. 1980년 설립 후 중구 서소문로에 있다가 1998년 강남 역삼동으로 옮겨 1000여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한 태평양은 강북 복귀 후 가장 먼저 로펌의 핵심 투자인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섰다. 특히 7월 말 김경석 외국 변호사를 PE전담팀으로 영입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변호사가 합류하게 된 PE전담팀은 태평양 M&A 법률자문의 핵심적인 팀으로, 윤성조 변호사가 수장을 맡고 있다. 태평양에서 20년간 M&A 변호사로 맹활약한 윤 변호사와 크로스보더 전문가인 김 변호사가 만나게 되면서 태평양의 PE전담팀은 ‘어벤져스’를 이루게 됐다.

특히 두 변호사는 모두 M&A 법률자문 시장에서 입지적인 인물이다. 이 때문에 시장은 그들의 만남의 시너지와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01년 첫 변호사 생활을 태평양에서 시작하며 어피티에퀴티파트너스의 SSG.COM(쓱닷컴) 투자, 맥쿼리PE의 LG CNS투자, IMM PE 태림포장 인수, 앵커에퀴티의 카카오

M 투자 등 다양한 국내·외 M&A PEF 운용사의 자문을 맡아왔다.

김 변호사는 링크레이터스 홍콩·서울사무소, 화이트앤케이 서울사무소를 거쳐 아놀드앤포터 서울사무소의 M&A 팀을 이끌며 글로벌 주요 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 사모펀드, 합작·해외투자 등을 수행해왔다.

최근 이투데이는 새롭게 이전한 종로 센트로폴리스 서울 사무실에서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를 만났다. 입사 한 달차를 맞이한 김 변호사는 “태평양은 열정이 있고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M&A업계에서는 크로스보더(국경간) M&A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로펌들도 크로스보더 딜 자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경간 이동 제한이 있게 되면서, 현재 크로스보더 딜 자문에서는 지역별 전문가의 보유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태평양의 PE전담팀은 김 변호사의 합류가 해외 진출 자문 업무와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



법무법인 태평양 PE전담팀 팀장인 윤성조(오른쪽) 변호사와 최근 영입된 김경석 변호사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여 년 간 회사에 몸담으면서 태평양의 M&A 법률자문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각 영역별, 지역별로 전문화되었음을 느낀다”며 “특히 김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를 비롯해 외국 고객과 다양한 PE들과의 업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비즈니스적인 감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이해하고 저희 고객의 기대치와 상대방의 기대치를 합의시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M&A자문 변호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중

에서도 특히 크로스보더 딜은 거래 종결이 인수자 입장에서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부터 인수한 이후 PMI까지 모두 파악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태평양에는 150여 명의 M&A 전문가가 있고 특히 PE전담팀에는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있다”며 “태평양 PE전담팀의 장점으로 꼽히는 남다른 집요함과 치열함 그리고 김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의 영입으로 전문성이 더 강화된 만큼 클라이언트들의 니즈에 더욱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용진 前 기재부 차관 취임**

김용진(사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31일 국민연금공단 1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정을 거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1961년생인 김 이사장은 1986년 행정고시(3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복지노동예산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으며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태영그룹 지주사 TY홀딩스  
신임 대표이사에 유종연 사장**

태영그룹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태영건설의 분할을 완료하고 지주회사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TY홀딩스는 9월 1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회사 분할 시 내정된 임원 인사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신임 대표이사에 유종연(사진) 사장, 총괄임원에는 황선호 경영관리실장이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유종연 TY홀딩스 신임 대표이사는 베인&컴퍼니 글로벌 파트너를 거쳐 SBS콘텐츠허브 대표이사과 네오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전략기획 역량과 추진력으로 태영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책임자로 평가됐다.

총괄임원에 선임된 황선호 경영관리실장은 삼성화재와 SBS를 거쳐 SBS미디어홀딩스의 경영관리를 담당할 그룹·관리 전문가로 꼽힌다. TY홀딩스가 그룹 최상위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아시아 최고부자’ 印 암바니  
라이벌 퓨처그룹 핵심사업 인수**

‘아시아 최고 부자’ 무케시 암바니(사진) 회장이 이끄는 인도 재벌기업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가 경쟁 유통업체 퓨처그룹의 핵심 사업을 인수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의 자회사 릴라이언스리테일은 전날 성명에서 “퓨처그룹의 소매, 도매, 물류와 창고 부문 자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는 2471억 루피(약 4조 원)에 달한다.

퓨처그룹은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매 기업으로 인도 전체 오프라인 소매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릴라이언스리테일이 이번에 매입한 사업 분야는 퓨처 그룹의 핵심 사업부로 꼽힌다. 이로써 릴라이언스는 인도 소매시장의 최대 경쟁자인 미국 아마존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최혜림 기자 rog@

**SPC그룹, 아르바이트 대학생 100명에 ‘행복한장학금’**

SPC그룹은 28일 ‘SPC행복한장학금’ 장학금 100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SPC행복한장학금’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등 SPC그룹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 근무기간과 근무태도, 학업계획,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매년 200명(한 학기당 100명)에게 등록금의 50%를 지원

하는 제도다. 2012년 상반기 시작된 이래 총 1628명의 학생에게 약 29억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SPC그룹은 매 학기 장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진행하였으나 이번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SPC그룹은 2011년 하반기부터



공개채용 인원의 10%를 아르바이트 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 한달간 한국 ‘디지털 인프라’ 체험**

SC제일은행은 빌 윈터스(사진)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하 ‘SC그룹’) 회장이 30일 입국해 약 한 달 동안 한국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빌 윈터스 회장은 한국 근무기간 동안 국내시장과 주요 이해관계자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고객 및 임직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온라인 채널을 통해 런던, 싱가포르

등의 글로벌 시간대에 맞춰 회장으로서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핀테크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빌 윈터스 회장이 평소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거듭 강조해 왔고,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의 차별화된 방역 시스템도 가까이서 살펴보기를 원했다”며 “한국 근



무 기회를 통해 빌 회장이 한국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SC그룹 경영 전략에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빌 회장은 국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당국, 주요 고객,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등 약 한 달 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출국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우송대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사진) 회장이 우송대학교로부터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31일 경총에 따르면 이날 열린 우송대 명예 박사 학위수여식은 우송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40여 명으로 최소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손 엔디컷 우송대 총장은 “손 회장은 현재 CJ그룹 회장으로서 그룹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음은 물론, 경총과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명예 학위를 수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인사**

- ◆교육부 ◇부이사관 전보 △교육부(애들랜드 한국교육원 파견) 김현주 △한국해양대 사무국장 조재익 ◇서기관 전보 △고등교육정책실 김경원 △교육부(LA 한국교육원 파견) 임소희 △국립국제교육원 노진영 △강릉원주대 강종부 △창원대 박상신 △한밭대 정원숙 △외교부 양호석 순상호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사회적기업과장 지영철 △강릉지청장 김남용 △목포지청장 김주택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도시활력지원과장 박용선 △철도시설안전과장 정선우
-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선임 △장관정책보좌관 류채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황세진 ◇전보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재연 △

- 상생협력정책과장 유환철 △기술보호과장 최열수 △제도약정정책과장 강기성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상창
- ◆산림청 ◇과장급 전보 △산림자원과장 황성태
- ◆기상청 ◇3급 전보 △관측정책과장 연혁진 ◇4급 전보 △국가기상수퍼컴퓨터센터장 장근일 △정보보호팀장 박근명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유민수 △위성기획과장 심재면 △위성운영과장 김도형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강호제 △주택·토지연구본부 최수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정문섭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조진철 △감사실 박종택 △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정우성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홍사흠 △도시연구본부 이승욱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이상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병재 △국토지식센터 황병화 ◇1급행정

- 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이강식 △행정지원실 김형표 △행정지원실 김진배 △국토지식센터 박순엽 △부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이윤석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2급행정원 승진 △국토지식센터 박정기 ◇전문연구원 승진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이승훈 ◇3급행정원 승진 △기획경영본부 김지형 △행정지원실 구민상 △행정지원실 오희정 ◇주임사무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소현 △주택·토지연구본부 조윤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하천연구센터장 정상화
- ◆한국시설안전공단 ◇승진 △생활시설본부장 김동희 △특수시설관리단장 류호상 ◇전보 △감사실장 권혁기 △건설안전관리실장 석인호 △재난안전기획단장 오영석 △시설성능연구원장(직대) 강영구 △인재교육원장 권혁운 △시설안전평가실장 김도균 △국가내진센터장 지승구 △터

- 널실장 박시현 △담양만실장 장종렬 △상하수도실장(직대) 신장건 △하차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장범수 △생활안전관리실장(직대) 이석호 △안전기획실장 김명호 △재난상황실장 오광진
- ◆산림조합중앙회 △기획조정실장배정영 △유통지원부장 김성근 △특화사업개발부장 임성훈 △이사회 사무국장 이호출 △SJ금융사업추진단장 사공정한 △강원지역본부장 박영선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손철호 △제주지역본부장 한민 △임업기계훈련원장 이재호
-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이향순 △감사실장 문정수 △재무회계팀장 이종민 △제도개선TF팀장 김주석 △삼청각TF팀장 이상하 △품의숲아트센터팀장 김석경
- ◆위메프 ◇임원 승진 △이사 박정훈
- ◆메이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정호영

**부음**

- ▲김진목 씨 별세, 김현기(신한금융투자 PWM서울FC센터장)·호기 씨 부친상 = 31일, 강릉 동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33-650-6165
- ▲엄상금 씨 별세, 함성덕(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전 고려대 교수) 씨 모친상, 오정미(서울대 약대 교수) 씨 시모상 = 30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02-2072-2010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바닥 알 수 없는 '정말 다른' 위기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빠져들고 있다. 방역 3단계 조치로 가면 성장률이 -3% 이하로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돈을 계속 퍼부을 수 없고 나랏빚을 자꾸 늘리는 건 더 큰 위기의 씨앗인데 재정만능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활로를 뚫고 투자와 고용,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이끄는 건 결국 기업이다.

일상을 멈춰 세운 코로나19의 충격은 지금 살아있는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혼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다. 세계 확진자수는 2500만 명, 사망자는 84만 여명이다. 요즘 하루에만 5000명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처참한 재앙이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 부총재는 "이번 위기는 정말(really)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천재로 불리는 케네스 로고프와 2009년 함께 저술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로 위기의 역사를 진단하고 미래를 통찰한 바 있다. 방대한 자료에서 이끌어낸 "모든 경제위기는 과도한 부채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은 지금 경제학계의 나침반이다. 그는 지난 6월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의 온라인 강연을 통해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깊은 침체에 빠져 코로나 이전의 생산력을 회복하려면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長期戰)이라는 의미다. 감염병 재앙의 원인과 양상, 경제·사회적 파장과 피해 규모는 확실히 과거 상상을 벗어난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가라앉고, 금융에 그치지 않은 실물 의 공급·수요 마비로 글로벌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는 상황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다. 추락의 바닥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안된다. 암울한 예측 많이 나왔고 경제지표의 증거도 속출한다. 한국 경제의 총합적(總合的) 에너지를 가능할 수 있는 기업실적 후퇴가 대표적이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92곳(금융업 제외)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줄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4.2%, -34.1%로 급감했다. 금융위기 때도 우리 기업 매출은 증가했었다. 코로나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드러낸다. 최대 기업이자 비대면(非對面) 경제에서 돋보였던 삼성전자를 빼면 매출액 감소율은 -6.5%, 영업이익 -35.4%, 순이익 -47.1%로 커진다. 592개 상장사 가운데

171곳이 적자를 냈다. 기업실적 약화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퇴, 소득 하락, 민생고통 가중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적자기업 줄도산과 대량 실업이 예고된다. 이런 와중에 너도나도 빚을 끌어모아 주식시장에 몰려드는 개인들의 '빚투' 과열은 기이(奇異)하고 아슬아슬하다. 거품붕괴의 후폭풍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성공이라고 자임했던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독이 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진 건 최악이다. 통제불능의 위험이 크고, 경제 봉쇄를 뜻하는 3단계 방역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극복에 힘을 모았던 예전의 국제공조마저 실종됐다. 모두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매달리는 게 지금 세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중국의 충돌로 국제 정치·경제 혼란의 불확실성만 커진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에도 수출이든 내수든 기대할 게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3%로 내다봤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래 22년 만의 큰 폭 마이너스다. 이 수치도 낙관적이다. 1분기(-1.3%), 2분기(-3.3%)의 역성장에서 3분기와 4분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방역 3단계 조치로 가면 성장률이 -3% 이하로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증유(未曾有)의 경제 비상사국"이라고 했다. 위기극복 방도는 재정 역량의 총동원이다. 이미 세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전례없는 4차 추경 얘기도 나온다. 발등의 불을 급하게 꺼야 하고, 돈 풀어 경기를 반등시키는 효과도 물론 있다. 그러나 단기 약발이다. 지속가능하지 않고 본질적 회복과 거리가 멀다. 정부가 돈을 계속 퍼부을 수 없고 나랏빚을 자꾸 늘리는 건 더 큰 위기의 씨앗인데 재정만능의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활로를 뚫고 투자와 고용,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이끄는 건 결국 기업이다. 그런데도 계속 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벼랑으로 내모는 거꾸로 정책만 쏟아낸다.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kunny56@

정책발언대



최진희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화학 3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 준 교훈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된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다. 바이러스는 빠르게 전파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한 화학물질들은 조용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바이러스의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초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어 2차, 3차 감염을 예방하는 것처럼, 화학 안전에 있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조기에 찾아내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우리는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잘 느끼지 못한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전까지 우리가 감염병의 심각성을 인지

하지 못했던 것처럼. 화학물질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은 화학물질로 인한 혜택이다. 지금까지 화학물질은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다가 피해사례나 사고가 발생하면 유해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때 유해성이 드러나면, 정부가 규제하는 식의 패턴으로 즉 개발·사용·피해(사고)-독성규명-규제' 식의 패턴인 셈이다. 각 단계별로 넘어가는 기간은 화학물질별로 다르지만 패턴은 대부분 비슷하다. 화학물질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른바 '화학 3법'이라고 하는 강력

한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학 3법'은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 사고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 강력한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크고 작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성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다. 이처럼 어렵게 도입된 '화학 3법'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자·기업·소비자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화학물질 안전을 지킴으로써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 전략'에 관한 대통령

지문 안이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화학 3법' 안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화학 3법'의 다양한 이행 주체 중 특히 화학소재 기업과 수출입업체에서 '화학 3법' 시행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 및 복잡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국내 화학기업의 활동 위축 및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호'라는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적·경제적 지원과 행정절차의 유연화 등 제도적 지원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단,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한 화학물질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루이 14세 명인 "짐은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히리라." 프랑스의 영광을 이룬 절대군주. 갑자기 사망한 루이 13세 뒤를 이어 다섯 살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막대한 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수많은 전쟁과 건축 사업을 벌여 프랑스의 영광을 이루었다. 아들과 손자마저 요절해 왕위를 증손자에게 물려준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638-1715. ☆ 고사성어 / 소규조수(蕭規曹隨) 예부터 내려오는 제도를 따르거나 이어 나가는 것을 이르는 말. '소하(蕭何)가 제정한 법규를 조참(曹參)이 따른다[蕭也規曹也隨]'라는 뜻. 한(漢)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제정한 개국공신 소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후임으로 조참을 추천하였다. 그가 죽은 뒤 승상(丞相)에 오른 조참은 소하가 제정한 모든 법규와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정치를 했다. 출전 양웅(楊雄)이 지은 법언(法言) 연건편(淵鶡篇).

양지역학의 불안정성을 비판하기 위한 사고실험의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존재다. 한 상자 속에 고양이와 간혀 있다. 상자 안에는 독 가스가 가득 찬 병이 있고 그 위에 망치가 놓여 있다. 이 망치가 한 시간 안에 떨어져 병을 깨뜨릴 확률은 50%. 이 실험에서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삶과 죽음이 중첩된 상태로 남게 된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보면 검찰 기사가 연상된다. 지금의 검찰 기사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됐다. 지난해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면서 수사 담당자와 접촉을 막고 공보관을 통해서만 취재가 가능하게 했다. 당연히 검찰 기자들의 취재는 어려워졌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공보관을 통해서 연락하라"는 답변이 이어진다. 게다가 법무부는 취재를 더욱 틀어막는

방안을 도입하려 했다. 검사와 기자의 만남에서 오간 대화를 기록하라는 것이다. 기사가 질문한 내용과 검사가 답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사후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검찰 안팎에서 반발하자 법무부는 이를 철회했다. 갈수록 검찰의 '깜깜이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현 여권 인사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

면서 남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진척 상황을 알 길이 없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멈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지 감시할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새 공보 규정이 검찰의 입맛에 맞는 '선택적 공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등으로 압수수색영

장 집행에 문제가 생겼고, 담당 부장이 다쳐 병원 진료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에는 정진웅 형사1부장의 입원 사진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추미에 법무 장관은 한 검사장의 소환 불응, 휴대전화 비밀번호 협조 거부 등 사실상 수사를 생중계했다. 한 검사장은 즉각 "공보준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착한 피의사실'과 '나쁜 피의사실'이 구별되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까지의 검찰발 피의 사실 기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인권을 불모로 선택적 공보를 하며, 취재 창구를 좁혀 언론의 감시 기능을 통제하는 게 정상인지 되묻고 싶다. 법무부가 관행 개선 명분으로 내세웠던 '검찰 받아쓰기'는 오히려 늘었다. 기자에게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 시사상식 / 어퍼웨어(Upperwear) 집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회사원들은 상의만 신경 쓰면 되기에 '허리 위(upper)만 잘 차려입으면 된다'는 의미에서 나온 신조어. 재택 근무하던 미국 ABC 방송 월 리브 기사가 생방송으로 진행된 아침 뉴스에 재킷까지 차려입었지만 바지는 입지 않아 방송에 맨다리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져 화제가 됐다. ☆ 속담 / 세 살 먹은 아이도 세 손의 것 안 내놓는다 사람은 누구나 제가 가진 것을 내놓기 싫어한다는 뜻. ☆ 유머 / 이해 안 되는 정신병 정신병원에서 환자 둘이 독서 감상평을 했다. 한 정신병자가 감상을 묻자 다른 환자가 "주인공만 많고 형식이 너무 단순해"라고 대답했다. "나도 그래. 두껍기만 하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 하고 맞장구 칠 때 간호사가 들어와 소리쳤다. "누가 대기실에 둔 전화번호부 가지고 갔어?"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지사첩



김종용 사회경제부/deep@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리고 검찰 기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논설실, 자본시장부, IT중소기업부, 정치경제부, 금융부, 유통바이오부, 사회경제부, 부동산부, 뉴스랩부, 국제경제부, 산업부, 탐사보도팀, 주소, 대표전화,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 K-외교, 지켜보고 있다

강형욱 개통령이 개에게 물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물린 지 일주일여만이다. 도티 초통령마저 뒷 광고에 물려 와병 중이니 이제 말쑥한 통령은 허재 농통령 정도인가. (임명직 공직자를 주인 무는 개로 규정한 무려 집권당 최고위원 후보의 모범에 따른 것이니 거기 비난은 정중히 반사합니다. 아시죠? 동글게 동글게~.)

강 개통령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적 처음이예요”라며 변명하는 견주에게 책임을 강조했다. “물린 사람 탓”으로 발뺌하는 견주에게 개 짖는 소리 말라며 꾸짖었다. 강 개통령 말대로 개는 훌륭하다. 주인이 안 훌륭할 뿐.

문 대통령은 다른 것 같다. 전염병이 퍼진 것도 민주노총 같은 초사이어인도 아닌 주제에 감히 광화문에 모인 탓이고 시민단체 추천도 안 받은 무허가 돌팔이들이 일 안 한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 문 대통령 집사 격인 총리는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다 무너졌다”며 판사 탓을 했다. 법에 따라 판단하라고 임명한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못 했다는 정치인 출신 행정부 최고 관료의 사리 분별 앞에 삼권 분립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불킥뿐인 듯.

세월호 사건 때 선장 탓, 해경 탓을 하던 전직 대통령에게 당시 문 대통령은 “모든 국가재난은 대통령 탓”이라고 핀잔을 줬다. 그럼 전염병이 재난 수준으로 잠궤한 것도 대통령 탓인데, 정작 문 대통령은 종교 탓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염병을 잡을 마지막 보루가 하나 남았다. 글로벌 백신 확보 전쟁터에 출전한 K-외교의 선봉장 강경화 장

##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부장



관이다. 문 대통령이 아직 “세계가 인정하는 K”라며 자찬하지 않는 것을 보니 별 성과가 없는 모양인데, 분명히 말하지만 지켜보고 있다.

백신은 수비에 급급한 지금의 상황을 공세로 전환할 계기로 꼽힌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중순에 접점이 시작되면 세상은 백신 맞은 자와 미접종자로 나뉠 게 뻔하다. 그래서인지 좀 산다는 나라들은 봉쇄에서 접종물량 확보로 방향을 튼 징후가 감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으로 6개의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 3상에 들어갔고,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백신은 총 8종이다. 아스트라제네카(영국·스웨덴), 모더나(미국), 화이자·바이오엔텍·푸싱파마(미국·독일·중국), 캔시노(중국), 시노백(중국), 시노팜·우한생물제품연구소(중국), 머독아동연구소(호주), 가말레야연구소(러시아)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이미 이들로부터 13억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싹쓸이했고 K-외교는 한 방울도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주도로 ‘초고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미국은 3억3000만 명 인구의 두 배에

달하는 백신을 손에 쥐고도 추가로 물량을 모으고 있다. 7월 말까지 6억 회분을 확보한 미국은 8월 5일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주고 존슨앤존슨과 백신 1억 회 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 인구 6700만 명인 영국도 이미 2억5000만 회 분 이상을 장바구니에 담아뒀다. EU와 일본은 인구 대비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다.

아직 빈털터리인 우리지만 걱정 없다. 그들에게 백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이 있지 않은가.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K-외교가 손을 놓고 있을 리는 없다. 국제백신공급협의체(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확보와 기업별 개별 협상 등 투 트랙 백신 확보 전략을 ‘논의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철없는 민간 기업들이 백신 위탁개발 생산(CDMO) 계약 같은 경솔을 범할 동안 정부가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않고 신중히 책상에 앉아 논의에만 집중하는 이유다.

또 하나 감사해야 할 일은 문 대통령이 우리 옆에 14억 명짜리 어려울 때 돕는 진짜 친구를 만들어줬다는 점이다. 그리고 백신은 2회를 맞아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14억 친구가 한 달에 1000만 명씩 두 번, 총 28억 회를 맞는 데는 겨우 2년 4개월이면 된다. 그동안 우리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과 귀신도 걸러주는 KF 마스크로 보호받으며 진짜 친구의 방문만 기다리면 된다. 군자의 몸가짐과 강호의 의리로 소문난 우리 베프가 외면할 리 없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K-외교, 지켜보고 있다. whan@

## 시설

### 경제지표 다시 추락, 돌파구가 안보인다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지표가 또다시 고꾸라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늘어나는데 그쳤다. 6월 4.1% 증가율을 보여 연초부터 계속된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가 싶더니 상승세가 다시 꺾인 것이다.

특히 대표적 소비지표인 소매판매가 -6.0%로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과 같은 감소폭인데, 2011년 2월(-7.0%)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저조하다. 정부가 5월부터 지급한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5~6월 소비가 반짝 늘어났다가, 정책 효과가 소진된 탓이 크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또한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6월 증가(5.2%)에서 다시 후퇴한 것이다.

7월 지표에서 광공업 생산지수가 1.6% 증가했고, 경기 흐름을 가늠케 하는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0.2포인트(P)와 0.4P 올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 폐쇄됐던 세계경제 활동의 재개 움직임과 우리 경제의 방역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8월 중순 이후 상황은 다시 악화일로다.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는 데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 거리두기로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가뜰이나 가리앉은 소비의 추락이 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예측된 것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를 각오해

야 한다. 3분기나 4분기에도 경기반등이 어렵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나쁜 국면으로 진전될 경우 방역조치 3단계로의 상황이 불가피하다. 경제활동이 사실상 봉쇄된다. 한국은 행은 최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2%에서 -1.3%로 내려잡으면서 민간소비가 -3.9%로 감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조치 강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그 전제부터 어그러지고 있다. 앞으로 소비가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조차 힘들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폭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이후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거리는 이미 썰렁하다.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의 생업 기반이 무너지고 수많은 기업들도 더 버티기 힘들어지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국내 경기의 버팀목인 소비의 추락부터 막는 것이 급선무다. 소비가 더 무너지면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일자리가 대규모로 줄어드는 충격 또한 필연이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을 거는 것보다 급한 게 없다.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책을 동원하고,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지원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산업부 차장



2000년대 들어 현대·기아차의 비약적인 성장을 주도한 주인공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그가 경영 전면에 나서서 동안, 그룹은 적잖은 성공을 거뒀지요. 이 성공을 밑거름으로 20년 만에 자동차와 함께 도심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세웠고, 미래 전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룹의 탄탄한 기본기, 나아가 정 회장이 똑심으로 다져놓은 현대차그룹의 조직력이 존재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800만 대 생산 판매'를 강조하며 양적 성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품질 경영'을 강조한 게 오늘날 현대차그룹의 밑거름이 된 것이지요.

정 회장의 경영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장 경영'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 또는 생산 현장을 찾아가 사업장을 점검하는 일인데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주요 사업장에 직접 날아가 현장을 점검하며

## 사장님의 도발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독려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 경영'은 정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3월 기아차 대표이사에게 오른 송호성 사장은 취임 직후 수출과 생산현장을 잇달아 찾았습니다. 신형 카니발 출고를 앞둔 이달 초, 소하리공장을 찾아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 경영'이었습니다. 앞서 5월에는 평택항 수출현장을 찾아 현장경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계열사 CEO가 현장을 직접 찾아 임직원을 독려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입니다. 다만 이제껏 현대차그룹에서는 이런 CEO의 행보는 조용히 이뤄지고는 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총수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는 '현장 경영'을 일개 계열사 CEO가 함부로 공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니까요. 나아가 '회장의 현장경영' 가치를 사장 따위가 희석하지 않겠다는 충성심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송 사장의 잇따른 현장경영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반기음과 어색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발"이라는 단어까지 들려왔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직설적인 평가가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얼마나 변화에 인색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송호성 사장을 앞에서 지켜본 기아차의 한 임원은 "송 사장께서 이전부터 '소통'에 코드를 맞춰왔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추진력도 이런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그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자율근무복과 틀을 벗어난 기업 분위기를 아닌, 경영 스타일 자체가 변화를 맞고 있는 셈이지요.

그 배경에는 새롭게 경영 전면에 나선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존재합니다. 계열사 CEO가 직접 대대적인 현장경영에 나서지만, 정작 그룹경영 전면에 나선 정 수석 부회장은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 속에서 더 많은 현대차그룹 CEO가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주위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junior@

## 우리말 한 토막

## 잇달다와 잇따르다

"행운이 잇달아 왔어!" "잇따른 부상에 또 그는 우승을 차지했다." "잇따 사고 소식에 모두가 슬픔에 잠겼어."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이어 발생할 때 우리는 '잇달다' '잇따르다' 등의 동사를 쓴다.

'잇따르다'는 "수출용 차량이 잇따라 선박으로 옮겨지고 있다"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는 뜻이다. 또 "수해를 입은 이웃에 보내질 성금과 성원이 잇따랐다"처럼 사건이나 행동이 이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잇단 어려움에 직면했다" "공사장에서 유물이 잇달아 출토됐다"에서 '잇달다' 역시 잇따르다와 사전적 의미가 같다. 두 단어 모두 자동사로서는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 때문에 복수표준어인 셈이다.

그런데 '잇달다'와 '잇따르다'를 모든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잇달다가 자동사 외에 다른 기능도 하고 있어서다. "사고 난 차를 견인차 뒤에 잇달았다"에서 '잇달다'는 일정한 모양이 있는 사물을 다른 사물에 이어서 달다는 뜻으로 타동사의 기능을 한다. 이때 잇달다 대신 잇따르다의 활용형 '잇따랐다'로 바꿔

쓰면 틀린 표현이 된다. 잇따르다는 타동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 잇따르다의 활용형이다. 잇따르다는 '잇따르니' '잇따른' '잇따랐다' 등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관형형 '잇따른' 자리에 '잇따'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잦다. '잇따의료 사고' '잇따 교편 추락' 등 평상시 많이 쓰는 '잇따'는 '잇따르다'의 관형형을 틀리게 쓴 표현이다. '잇따른'으로 고쳐야 맞다. 첫머리 세 번째 예시문에 제시된 '잇따 사고'도 이런 이유로 '잇따른 사고'로 해야 옳다.

이와 함께 많이 쓰는 표현에 '연달다'도 있다. "앞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혔어"와 같이 주로 '연달아'의 꼴로 쓰이는 '연달다'는 잇따르다와 동의어이다.

쓰임이 헷갈린다면 목적어 필요 여부로 살피면 된다. 목적어를 쓰지 않을 때는 자동사인 '잇달다' '잇따르다' '연달다' 모두 쓸 수 있는 반면, 목적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타동사 기능도 하는 '잇달다'만 쓸 수 있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 SAMSUNG

## 모든 세상이 노트 안에



생각을 마음껏 쓰고 그리는  
S펜 드로잉으로

내가 가장 힐링되는 세상



매력적인 프리미엄 컬러  
미스틱 브론즈로

내가 가장 돋보이는 세상



**2020년 8월 21일 출시**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참조

**Galaxy  
Note20 | 20 Ultra**  
The power to work & play.